



# 주체 108(2019)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주제 108(2019)  
루체 제359호 월간

# 농장마다 고기풍년 가져오세

너무 빠르지 않게

작사 리계심  
작곡 조승우

Musical notation for the first part of the song. Key: G major (two sharps). Time signature: 2/4. Dynamics: *mf*. Chords: G, Em, D.

1. 해 - 마 다 날 알 - 풍 년 - 가 져 온 - 우 리

Musical notation for the second part of the song. Key: G major (two sharps). Time signature: 2/4. Dynamics: *Am*, *D7*, *G*.

해 - 마 다 고 기 풍 년 - 가 져 - 오 세 - 나

Musical notation for the third part of the song. Key: G major (two sharps). Time signature: 2/4. Dynamics: *f*. Chords: C, G, D, A<sub>7</sub>,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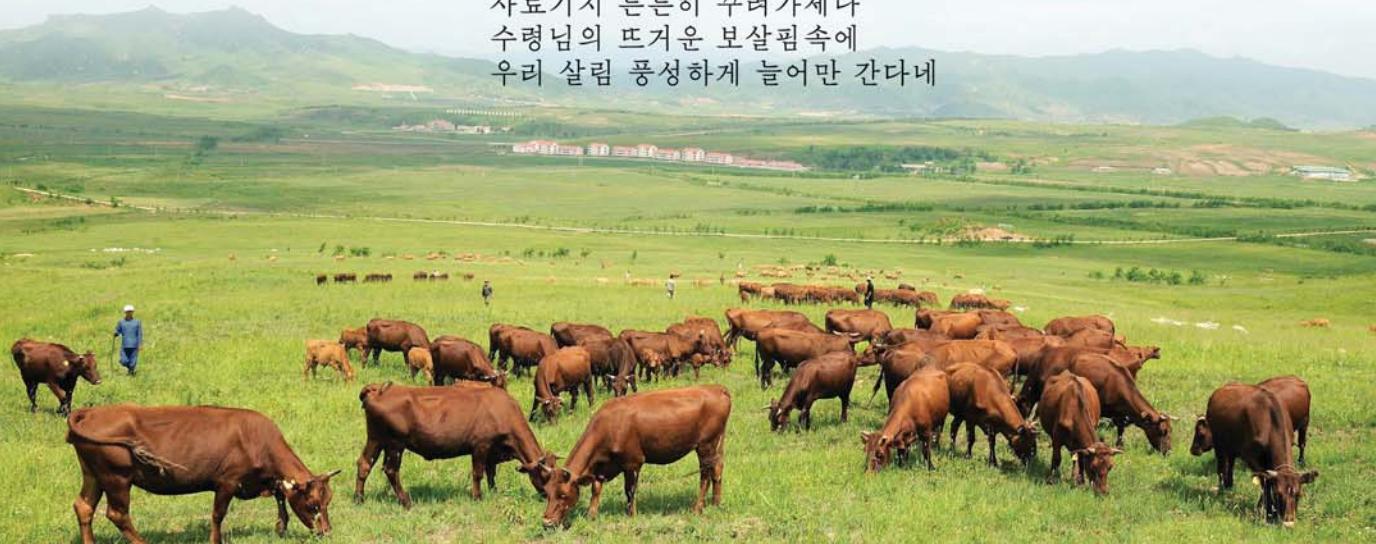
작 - 업 반 — 고 기 - 목 표 문 제 없 고 — 요

Musical notation for the fourth part of the song. Key: G major (two sharps). Time signature: 2/4. Dynamics: *G*, *Em*, *C*, *D7*, *G*.

집 집 - 마 다 책 임 - 량 을 넘 - 쳐 하 - 세 - 나

2. 양떼는 산허리에 흘러 흐르고  
토끼 돼지 닭무리 늘어만 가네  
두엄을 실어내니 땅은 기름져  
날알풍년 고기풍년 더욱 좋다네

3. 산에도 들판에도 먹이풀 심어  
사료기지 튼튼히 꾸려가세나  
수령님의 뜨거운 보살핌속에  
우리 살림 풍성하게 늘어만 간다네





## 월향전시관을 찾은 재중동포들

평양에 있는 월향전시관에서 조선 치마저고리를 손에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조국을 방문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축하단 성원들.

몸은 조국과 멀리 해외에 있어도 민족옷을 즐겨 입으며 민족의 냄과 열을 지켜가려는 동포들의 마음이 얼굴마다에 비껴 흐르고 있다.

본사기자 김영호

## 차례

~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

### 과학적인 축산로대를 마련해주시려 ..... 3

일화

그 어떤 로고도 마ا하지 않으시고	6
축산업 발전의 4대 고리를 틀어쥐고	7
제힘으로 일떠선 종합축산분장	8
연합기업소에서도 축산을 장려	10
주체화를 목표로 삼고	12
수의축산부문 인재양성의 원종장	14
축산가정	15



5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 수난당한 대지 ..... 16

일화

### 하나를 생각하시여도 ..... 18

수기

### 그날의 당부를 잊지 않고 ..... 19

### 매 흥과 친복, 열렬한 환대 ..... 20

### 조선의 하늘을 밀어야 한다 ..... 21

사진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애경 ..... 22



22

### 자력갱생을 동력으로 ..... 24

### 모방경제를 생산화로 ..... 25

### 소조원들의 마음 ..... 26

### 악수로 목치료를 한다 ..... 28

### 호평받는 천연건강제품들 ..... 30

<b>총경받는 교육자</b>	32
편지	
부모님처럼 한생을 빛내여갑시다	33
교향소식	
<b>과학기술로 발전해가는 구역</b>	34
조국의 품에 안겨	
<b>그 마음이 애국이다</b>	36
43	
참관기	
<b>2019년 중국 베이징 세계원예박람회 조선원을 찾아서</b>	38
곤충애호가들의 길한	40
인상기	
<b>자기의 힘, 자기의 손으로</b>	41
<b>제일 고운 옷</b>	41
고국방문	
<b>감탄과 아쉬움을 안고</b>	42
『빛나는 조국』에서 조선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보다 (4)	44
<b>조국의 각 도 특산물을 (7)</b>	45
수기	
<b>참대처럼 곧게, 소나무처럼 푸르게</b>	46
민족의 향기	
<b>조선어 맞춤법에 대해 아시는지요?</b>	47
력사인물	
<b>풍속화를 잘 그린 김득신</b>	48
<b>우리 민족의 반침략투쟁사 (3)</b>	49
사화	
<b>부분노의 지략</b>	50
53	
평안남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4)	51
야화	
<b>면만설의 쇠돌미</b>	52
<b>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7)</b>	53
<b>자주통일의 근본초석</b>	54
<b>민주와 정의에 대한 도전</b>	55
<b>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다</b>	56
상식	
<b>동백기름</b>	27
이발보호 방법 몇 가지	37
유보아	
<b>머머니의 실물교암</b>	48
<b>조선속담 (무판심성)</b>	50

- 축산업발전을 위하여 -

# 과학적인 축산토대를 마련해주시려

조국에서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가적인 투자가 집중되는 속에 대규모축산기지들이 새로 일떠섰으며 축산물생산단위들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축산기지들은 물론 많은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가정세대들에서도 집집승기르기를 활발히 벌리고 있다.

농산, 축산, 수산을 먹는 문제 해결의 3대 축으로 정한 조국은 축산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조국에서의 축산업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관심과 로고속에 그 발전에서 질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이께서는 축산물생산이 보다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혁신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삼복의 무더위가 한창인 주체101(2012)년 8월 그이께서는 어느 한 종합목장을 찾으시였다.

언제나 과학기술을 중시하시는 그이께서는 목장의 우량종축산연구소의 연구사업에 대해 묘해하시였다. 그이께서 큰 관심을 가지신 것은 파울염소를 우리 나라의 조건에 풍토순화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이였다.

당시 연구소에서는 새끼밴 파울염소의 어미들과 젖떼기새끼들에게 배합먹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이고 있었으며 자연풀판에 의한 사양시험도 진행하고 있었다.

몹시 무덥고 공기도 좋지 못한 우리안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파울염소의 증체속도는 재래종 염소에 비해 2배나 빠르다고 하시면서 파울염소

는 좋은 품종의 염소이라고, 파울염소기르기에서 성공하려면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을 완성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우량품종의 양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풀과 고기를 바꾸려면 우량품종의 집짐승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을 완성하고 일반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주체107(2018)년 8월 또다시 종합목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육종사업과 사양관리방법을 과학화하고 현대화수준을 높여 축산에서 선진 국가대열에 들어서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곳을 돌아보시면서 그이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이 종자문제와 먹이작물을 널리 퍼치는 문제였다.

돌이켜보면 축산기지들을 돌아보실 때마다 그이께서는 좋은 집짐승확보와 충분한 먹이보장, 과학적인 사양관리와 철저한 수의방역에 대해 자주 강조하시였다.

목장의 연구소를 돌아보시면서는 육종사업에서의 핵심목표는 생산성이 높고 사료단위가 낮으며 고기질과 맛이 좋은 종자들을 전국에 퍼치는 것이라고 이르시였다.

비육소원종장 1직장에 가시여서는 우량종자들의 퇴화를 막고 원종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학기술사업을 짜고들며 증체률이 낮고 고기맛과 우유의 질이 높지 못한 소품종들을 우수한 품종으로 교체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먹이작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돌리신 그이께서는 사료용포전들을 돌아보시였다.

사료용사탕수수포전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정

## - 축산업발전을 위하여 -

보당수확고가 높은 종자를 전국에 도입하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산성이 높고 재배가 헐하며 경제적효과성이 뛰어난 먹이작물을 많이 퍼치면 축산에서 돌파구가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다수학먹이작물, 우량품종의 사료용풀들을 많이 재배하고 널리 퍼쳐 풀과 고기를 바꾸려는 것이 그이의 의도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소우리환경을 수의방역 학적요구에 맞게 잘 꾸리고 관리하며 품종별특성에 맞게 먹이처방을 잘해 영양관리를 잘할데 대해서도 강조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뒤떨어진 우리 나라의 축산과학기술실태를 사실그대로 평가하고 국가적으로 중시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로세우며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화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 풀과 고기를 바꾸어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이시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염원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축산기지들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려 고기문제해결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고 나라의 축산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쳐가시였다.

주체102(2013)년 5월 그이께서 외진 산중에 자리잡고있는 어느 한 축산단위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그곳은 건설중이여서 잘 닦아진 도로가 없었다. 우불구불한 고개길과 개울을 차로 달리시고 흙탕물이 튀여오르는 진창길도 걸으시며 파울염소호동건설장에 이어 산골짜기의 제일 막바지에 있는 야외염소우리에까지 찾아가신 그이께서는 축산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인민들을 위하여 이보다 더 힘하고 위험한 곳들도 다 가보려고 한다고, 자신께서 좋은 길로 번듯하게 꾸려진 곳들만 다녀서는 언제 가도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

을 마련해줄수 없다고 하시였다.

하루빨리 온 나라에 우량품종의 풀먹는집짐승떼가 구름처럼 흐르게 할 결심을 지니신 그이이시기에 때로는 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해 남짓한 기간에만도 어느 한 육종장을 세차례나 찾으시였고 어떤 때에는 씨는듯 한 무더위속에서 한 종합목장을 여러 시간이나 돌아보시였다.

그 길에서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축산기지들을 보시고는 그토록 기뻐하신 그이이시였다.

언제인가 대동강돼지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축산에서 기본인 종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량품종육종체계를 세워놓고 새끼돼지생산을 정상화하고있는데 대해 그토록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비육사1호동 생산현장에 들리시여서는 살찐돼지들이 옥실거리는 모습을 보시며 볼만하다고 하시였으며 돼지배설물을 리용하여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들도 갖

추어놓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데 대해서도 치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돼지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고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비결은 사양관리를 철저히 과학화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에서는 사양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축산부문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는 믿음도 안겨주시였다.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이시기 위해 그 어떤 로고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이의 현신에 의해 나라의 곳곳에 과학화가 실현된 축산기지들이 일떠서고 축산물생산에서는 전진이 이룩되고있는것이다.

인민들은 확신하고있다.

그이께서 계시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현신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염원은 반드시 현실로 실현되게 되리라는것을.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축산의 과학화가 실현된 대동강돼지공장



평강고기가공공장에서



보통문거리고기상점에서



## 그 어떤 로고도 마라하지 않으시고

### 먼저 풀어주신 문제

주체101(2012)년 8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요일의 휴식도 미루시고 어느 한 종합목장을 찾아주시였다.

풀과 고기를 바꾸려면 우량품종의 집짐승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을 완성하고 일반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인공풀판과 먹이가공실 등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우량종축산연구소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과학기술성파자료전시장에서 연구소가 이루 한 과학연구성파자료들을 편집한 록화물을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과학기술자료들을 어떻게 보급받고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얼른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주민거리는 그곳 일군들의 모습에서 아직 과학기술자료보급체계가 제대로 서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기본은 새 기술보급사업이라고 하시며 종합목장에서는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을 중앙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연구사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던 문제를 풀어주신 그이께서는 이번에는 실험실로 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직 실험설비들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보시고 필요한 설비들을 해결해줄데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우량종축산연구소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현지지도에 의해 종합목장은 비록 외진 산골에 자리잡고 있지만 나라의 축산업발전에서 큰 뜻을 차지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그쯤 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 길 아닌 길을 헤치시며

주체102(2013)년 5월 20일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어느 한 육종장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점심시간인지라 한적한 건설장에 조용히 들

어서시는 그이를 뵈옵자 일군들은 너무도 뜻밖이여서 어찌할바를 몰라하며 인사의 말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힘들어도 오늘 여기에 와보길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건설장을 둘러보시였다.

한동안 육종장의 기본사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파울염소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일군들을 재촉하시였다.

산골짜기의 제일 막바지에 있는 파울염소우리까지 가자면 이제까지 온 길보다 더 험한 산골길로 가야 하였다. 일군들이 간절히 만류해드렸으나 원수님께서는 결심을 굽히지 않으시고 차에 오르시였다.

길 아닌 길을 따라 힘겹게 달리던 승용차는 얼마 못 가서 끝내 진창에 빠지고 말았다.

바퀴는 헛돌며 아즈러운 소리를 냈다.

일군들이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그이께서는 누가 어쩔 사이도 없이 차문을 여시고 그 험한 진창길에 내려서시더니 흙탕물이 튀여오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걸음을 내짚으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골안의 막바지에 있는 야외염소우리에 이르시였을 때 마침 방목나갔던 파울염소들이 떼를 지어 우리로 들어왔다.

그이께서는 한 새끼염소를 쓸어주시며 이 염소들이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고기를 정상적으로 먹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겠는지를 모르겠다고 유쾌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때 별안간 새끼염소가 몸을 솟구며 《매-》하고 울음을 터쳤다.

그이께서는 새끼염소의 등을 두드려주시며 《이놈이 제법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며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 말씀에 모두가 웃음을 지었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냄원대로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이기 위해 그 어떤 로고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현신은 육종장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게 한 원동력이였다.

본사기자



## 축산업 발전의 4대 고리를 틀어쥐고

원종보존체계를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다.

먹이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축산업발전의 결정적 담보이다. 아무리 좋은 집짐승품종이 있다고 해도 먹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모든 축산물생산단위들에서는 집짐승먹이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를 찾고 그 실현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받들어 축산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새로운 인공풀판과 자연풀판을 잘 조성해놓고 《애국풀》, 큰단백풀과 같이 생산성과 영양가가 높은 먹이풀들을 널리 재배하는데 힘을 넣고 있다. 그리고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받아들여 축산에 필요한 알곡먹이생산을 늘여나가고 있으며 단백질먹이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고 효능높은 집짐승먹이첨가제를 생산하여 먹이단위를 낮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먹이가공설비를 비롯한 축산기계들의 현대화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과학적인 집짐승사양관리 역시 축산업발전에서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종자문제는 축산업발전의 선결조건이다.

축산과학연구기관에서는 먹이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며 번식률이 높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 우량품종의 집짐승을 육종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축산부문에서는 원종장과 종축장들의 토대를 강화하고 집짐승종자생산공급과

있으며 실리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고 사양관리도 집짐승들의 활동습성에 맞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과학연구기관의 역할을 높이고 축산물생산자들에게 과학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으며 앞선 사양관리방법과 좋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고 있다.

축산업에서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집짐승들의 폐사를 낮추고 축산물생산을 안전하게 내밀수 있게 하는 생명과도 같은 사업이다. 그런데로부터 조국의 축산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는 방역이자 곧 생산이라는 자각을 안고 수의방역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집짐승들에 대한 겸진과 우리소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기별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집짐승질병을 미리 막기 위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효능높은 수의약품을 개발리용하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로부터 전염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한 대책도 세우고 있다.

오늘 전문축산기지들은 물론 협동농장, 개인세대들과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축산업발전의 4대 고리를 틀어쥐고 축산물증산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하여 나라의 축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축산기지들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를 다그쳐 나가는 것과 함께 축산업발전의 4대 고리를 일관하게 관찰해나감으로써 하루빨리 나라의 축산업을 세계선진국대열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농업성 축산관리국 기사장  
박용근

## 제힘으로 일떠선 종합축산분장



방목지로 나가는  
염소떼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남산축산전문협동농장에는 제힘으로 일떠선 종합축산분장이 있다.

수십동이나 되는 염소와 양, 소, 계사니, 돼지우리들과 닭, 오리사에는 집짐승들이 육실거리고 양어장에는 잉어를 비롯하여 붕어, 기념어 등 물고기들이 뛰어들어 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젖가공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면 방목지에는 집짐승들을 순환식으로 방목할 수 있는 수백정보의 자연풀판과 수십정보의 인공풀판이 펼쳐져 있고 태양열온실들이 꾸려져 있다.

우리와 만난 분장장 로련호는 말하였다.

『우리 분장은 원래 알곡생산을 주로 하는 농산작업반이였다. 그런데 것이 축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국가의 조치에 따라 농산작업반을 축산작업반으로 전환하고 축산기지를 꾸리였다.

몇 해 전 우리 농장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보여주기가 진행되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가 거둔 성과를 축하해주며 그 비결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자기 힘을 믿고 멀쳐나선다면 이런 창조물을 열이 아니라 백개라도 일떠세울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분장을 일떠세우던 나날은 그



닭사에서

농장의 젖가공실에서 생산되는 치즈



대로 자기들이 제힘이 제일임을 다시 한번 체득하는 과정이였다고 말하였다.

실지 이곳 사람들이 분장을 세우려고 할 당시는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여서 애로와 난관이 수없이 많았다. 거기에 농산을 하던 작업반이 축산으로 방향전환을 하다보니 축산토대는 물론 경험과 지식도 거의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곳 농장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해갈 의지를 안고 분장건설에 나섰다.

그때를 회상하며 당시 작업반의 일꾼이었던 김봉길은 말하였다.

『그때 적대세력들은 붕괴설을 퍼뜨리고 시간표까지 정하면서 얼마 안 있어 공화국이 주저앉을 것이라고 떠벌이였다. 그때 그 소식을 전해들은 농장원들이 얼마나 분격하였는지 모른다. 누구나 적대세력들이 보란듯이 하루빨리 분장을 일떠세워 우리가 제힘으로 어떻게 일떠서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자고 하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건설을 벌려나갔다.』

대중이 일떠서니 그 힘은 대단하였다.

농장원들은 겨울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언땅을 까내고 방대한 기초굴착작업을 앞당겨 끌냈으며 전문가나 기능공들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던 생산건물의 설계와 지붕공사, 설비조립 등을 훌륭히 완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렇게 일하면서도 그들은 축산과학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애썼고 축산토대를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과 집짐승들을 확보하였으며 우량품종의 종자돼지며 닭풀종을 구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백리길을 오고

가군하였다.

이런 대중의 적극적이며 혁신적인 노력에 의해 분장건설은 반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될 수 있었으며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당시는 하나의 축산작업반의 규모였다. 하지만 그들은 단계별 발전목표를 높이 세우고 집짐승종수와 마리수를 늘려나갔으며 풀판을 조성하고 양어장도 건설하여 축산과 양어를 배합한 종합적인 분장을 꾸리였다.

허춘금농장원은 『본격적인 축산을 하면서 우리는 해마다 수십t의 젖가공제품과 고기와 알, 물고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집짐승배설물로 메탄가스화도 실현하여 뺄감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농장원의 이야기를 놓고도 그들이 제힘으로 일떠선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며 창조의 열매가 얼마나 큰 은을 나타내는가를 느끼게 하고 있다. 하기에 언제인가 이곳을 돌아본 다른 나라의 축산전문가들은 조선사람들이 지닌 견인불발의 정신력과 자력갱생의 위력에 놀라움과 감동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지금 남산축산전문협동농장은 이미 마련된 축산토대를 보다 공고히 하면서 자력자강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분장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 련합기업소에서도 축산을 장려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는 『로동신문』을 비롯한 조국의 출판보도물들에 자주 소개되군 한다.

그 비결은 기업소에서 주체비료생산성과를 높이는것과 함께 축산을 장려할데 대한 당(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앞장에서 판철한데 있다.

지금 이곳으로는 련합기업소의 축산경험을 따라배우기 위해 매일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기업소지배인 김명철은 적들의 비렬한 경제제재와 봉쇄로 모든것이 어렵지만 련합기업소가 생산의 동음을 멈추지 않는 것은 자체의 축산기지가 은을 내고있는것파도 관련되어있다고 말하고있다.

실지로 덩지 큰 기업소의

체모에 어울리게 축산기지는 그 규모가 클뿐만아니라 고기와 알생산량이 국영목장 못지 않다.

축산기지에는 매 집집승들의 생산목적과 성장단계별에 따른 여러 호동과 알깨우기실 등이 특성에 맞게 꾸려져있다.

알깨우기실에서는 오리와 계사니, 칠면조, 닭과 같은 가금류들을 계단식으로 깨우고 있는데 하루에만도 1 500마리의 새끼오리가 까나오고있다. 고기 생산량을 늘이자면 뛰니뛰니해도 새끼오리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는것이 이곳 관리공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기업소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만든 알깨우기설비들에서는 표준수치대로 온도, 습도가 컴퓨터에 의해 실시간 자동적으

로 조절되고있다.

오리사만 해도 4층짜리 건물인데 그안에서 자라는 오리들과 야외의 오리들까지 모두 합하면 5만마리가 넘는다. 관리공들은 겨울에도 오리고기생산량을 줄이지 않기 위해 단층건물들의 지붕마다에 온실조건을 지어놓고 오리를 키우고있다.

특색있게 건설된 호동들마다에는 돼지, 꿩, 계사니, 닭, 메추리 등 집집승들이 우리를 짹채우고있다.

몇해전 기업소에서는 돼지사를 확장하고 년간 돼지고기생산량을 150여t으로 끌어 올리였다.

4층짜리 오리사와 돼지사의 온도보장은 비료를 생산하고 남은 폐증기를 리용하기때

문에 추운 겨울에도 고기와 알생산이 정상화되고있다.

직장에서는 집집승들에 따르는 먹이단위를 과학적으로 정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건들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분쇄, 미생물배양 등 현대적으로 꾸려진 흐름식먹이생산공정에서는 각이한 집집승들의 성장에 필요한 사료들이 생산되고있다.

기업소에서는 단백초를 자체로 재배하여 집집승먹이에 리용함으로써 먹이소비기준에서 알곡비중을 대폭 낮추고있다.

그리고 찔팡이, 삼지구엽초, 삽주를 비롯한 약초들로 집집승들이 설사를 비롯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수의약품들을 자체



과학적인 수의방역체계를 세워간다.

로 만들어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청천강기술에 흐르는 소, 양, 염소떼의 모습은

축산을 잘하여 후방사업에서 소문을 내고있는 기업소의 모습을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하여준다.

기업소에서는 생산된 고기와 알을 종업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다.

영양제식당을 비롯한 구

내식당들에서도 축산기지에 토대하여 운영을 잘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좋은 평을 받고 있다.

후방공급사업을 생산을 추동하고 고무하는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킨 여기에 기업소에서 찾은 생산정상화의 비결의 하나가 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집집승들이 차넘치는 남홍청년화학  
련합기업소의 축산기지



축산기지의 행동창고



## 주체화를 목표로 삼고

조선은풍합영회사에서는 국내에서 수요가 높은 《은풍》복합먹이첨가제와 배합먹이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다.

제품들은 첨단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하여 만든 것이다.

《은풍》복합먹이첨가제만 보아도 최고품질의 영양첨가제인 각종 비타민들과 아미노산, 광물질 등의 원료들이 선진적인 배방체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국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집집승들과 물고기의 각이한 시기별 영양학적요구와 생산적수요에도 알맞게 되여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첨가제들과 배합먹이들은 전국의 축산과 가금, 양어부문의 공장, 농목장들은 물론 주민들속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리원철연구실장은 말하였다.

《우리 <은풍> 제품에 대한 수요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높아가는 수요에 생산을 따라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생산장성의 비결을 수입에 의존하던 원료들을 국내원료로 전환하는 동시에 생산된 제품들이 국제품질 표준과 사양표준에 맞게 하는 데서 찾고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회사의 종업원들은 그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서 국내원료원천을 찾아내고 리용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시기에만도 그들은 수입에 의존하던 첨가제의 중요원료의 하나인 칼시움과 효소제 등 적지 않은 광물질들을 국내원료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에서 성공하여 생산실천에 도입하였다. 뿐만아니라 단백질원



국내원료에 의한 먹이첨가제와 배합사료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



료원천을 찾아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주목할만 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배합사료생산에서도 그들은 나라의 실정과 세계적인 발전추세의 요구에 맞게 국내원료를 적극 탐구리용하고 있으며 종전의 가루먹이만이 아니라 팽화먹이, 성형먹이생산공정들을 새로 꾸리고 지금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내밀고 있다.

이와 함께 자기들이 이룩한 과학기술성과를 도입시험하기 위한 시험목장을 보다 현대화해나감으로써 제품들의 품질을 과학적으로 담보해나가고 있다.

지금 이곳 종업원들의 노력으로 하여 《은풍》복합먹이첨



창고를 가득 채운 여러가지 먹이첨가제들



새로 건설한 300t 능력의 원료저장탱크

가제와 배합먹이원료의 주체화가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 수의축산부문 인재양성의 원종장

평성수의축산종합대학은 조국에서 수의축산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키워내는 외아들대학이다.

전후에 창립된 대학에서는 지난 60여년간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요구되는 수의축산부문 인재들을 수없이 양성하여 해마다 전문축산기지들과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어 축산업발전과 인민생활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최근년간 나라의 축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데 따라 대학에서는 전문학부, 학과들을 더 늘이고 각종 실험실습실들을 새로 꾸리거나 개건하여 교육환경을 새롭게 변모시키였다.

교육방법에서도 지난 시기 지식전수위주의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동적인 탐구자, 창조형의 실천가가 되게 하기 위한 교육을 중시함으로써 교수의 질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 대학에서는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인 종자, 사료, 과학적인 사양관리, 수의방역에서 많은 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교수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려 나노기능성담체에 의한 집집승비루스성전염병진단액과 생물활

성제, 집집승인공수정의 과학화를 실현한것을 비롯하여 수의축산부문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수많이 해결하였다.

대학의 학생들도 과학연구활동을 힘있게 벌려 동아시아지역 평양 2016년프로그램경연에서 우승한것을 비롯하여 현시기 수의축산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지 않게 해결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비롯하여 각지 수의축산기지들과 과학연구기관들에 달려나간 이 대학의 졸업생들은 과학기술발전의 중추가 되여 축산업의 과학화, 현대화, 실용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고 있다.

우리와 만난 김광철교무부학장은 《대학에서는 앞으로도 수의축산과학교육의 중심, 축산부문 과학자, 기술자양성의 원종장답게 우리 조국을 축산에서도 선진국가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동력이 될 능력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 평



## 축산가정

조국에는 개인부업축산을 잘 하여 전국에 알려진 가정들이 수없이 많다.

평양시 력포구역 대현동 73인민반에서 사는 현복순가정도 그런 가정들중의 하나이다.

오늘 그의 집으로는 가정축산경험을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때마다 현복순녀성(62살)은 가정에서의 축산도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주곤 한다.

현복순녀성이 축산을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이 였다고 한다.

그가 축산을 시작하게 된것은 가정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기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군대원호와 중요대상건설지원으로 사회주의건설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려는 충동에서부터였다.

이러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축산을 잘해보려는 욕망만이 앞섰던 그는 단번에 15마리의 새끼돼지를 가져다놓고 정성스레 관리하였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잘 자라면 돼지들이 제대로 먹지 않더니 하나, 둘 쓰러져나가는것이였다.

그는 물론 온 가정이 너무 안타까워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밤 여기저기 뛰어 다니던 남편이 축산과 관련한 책들을 안고 집에 들어섰다.

그때부터 그들부부는 짬만 있으면 책들을 읽었다. 그 나날 현복순녀성은 돼지들이 걸린 병

과 그 치료방법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며 가정축산도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수의방역소와의 련계 밑에 남은 돼지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세워나가는 한편 전문가들에게서 축산과 관련한 지식을 착실히 배워나갔다.

이와 함께 먹성이 좋고 빨리 자라며 병결질성이 강한 우량품을 계속하고 있다.



종의 집집승들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돌리였다.

좋은 종자돼지가 있다고 하면 그는 자강도, 량강도를 비롯한 면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마다 들어나는 돼지마리수에 필요한 먹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주변과 여러 비경지들에 콩, 강냉이를 많이 심어 가꾸는데도 많은 품을 들이였다.

자식들도 어머니의 일손을 적극 도와나섰다. 모두의 노력

에 의해 가정의 축산은 점차 활기를 떠여 해마다 고기생산은 늘어났고 그의 가정은 구역적으로 소문난 축산가정으로까지 되었다.

현복순녀성은 개인부업축산을 시작할 때 다진 맹세대로 해마다 생산되는 많은 돼지고기를 인민군부대들과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보내주었으며 년로보장나이가 지난 오늘도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공로로 하여 전국원군미풍열성자대회, 전국축산일군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 참가하는 영예를 지니였다.

힘들지 않는가 하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힘들 때가 많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나라 공민의 의무를 적으나마 했다고 생각하면 더 성수가 난다고 궁지 높이 말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엄향심

## 수난당한 대지

5. 30폭동과 8. 1폭동을 계기로 시작된 백색 테로의 회오리바람은 1931년에 들어서면서 더 심하게 만주대지를 휩쓸었다. 적들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이 여러해동안 품을 들여 키워온 혁명력량을 뿌리채 뽑아던지려고 도처에서 퍼비린내나는 폭압소동을 벌리였다.

동만에 나와보니 남만이나 중부만주일대보다 공기가 더 팽팽했다. 폭동의 후파도 더 참혹하고 파괴적이었다. 돈화남문에서 장대기에 걸려 있는 폭동자의 머리를 보고 나는 혁명세력에 대한 적의 공세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짐작하였다.

교조주의와 소부르죠아영옹주의에 인이 박힌 종파사대주의자들은 5. 30폭동과 8. 1폭동을 치른 후에도 국치일, 10월혁명기념일, 광주폭동기념일을 비롯한 여러 기념일들을 계기로 기념 폭동, 수학폭동, 공포폭동의 명목밑에 련속적인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회수는 실로 연 수백 회에 달하였다. 적들의 테로선풍이 해를 넘기면서 계속된 것은 그때문이였다.

그 과정에 간도의 혁명조직들은 거의 파괴되었다. 전렬에서 싸우던 핵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폭동대렬을 따라다니며 밥을 날라주던 사람들까지도 모조리 잡혀가거나 처형되였다. 한해전에 우리가 두만강연안으로 나가면서 복구해놓았던 조직들도 적지 않은 손실을 당하였다.

폭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중 일부는 적들에게 자수하거나 혁명조직에서 떨어져나갔다.

지하로 들어간 조직선을 찾으려고 마을에 가면 슬금슬금 눈치만 살피면서 결을 주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간도는 공산당때문에 녹았다.》, 《공산당의 망동 때문에 온 간도천지가 피바다, 불바다로 되였

다.》, 《공산당장단에 춤을 추다가는 일가멸족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의 간판을 가진 사람이면 소속파 계렬에 관계없이 덮어놓고 외면하거나 경원시하였다.

내가 명월구에 갔을 때 옹구당위원회 위원 리청산은 폭동후 자기가 겪어온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였다.

『상급에서는 자꾸 군중속에 들어가 조직을 복구확대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볼 재미도 없고 용기도 나지 않소. 나를 혁명가라고 존대하던 사람들도 그렇고 지난날 내 보증으로 조직에 흡수된 사람들까지도 몇달째 나만 보면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있으니 이거야 어디 서러워서 혁명을 하겠소. 폭동바람이 몇번 불어대더니 간도의 민심이 아주 고약해졌단 말이요. 이렇게 랭대를 받으면서 살아갈바엔 차라리 혁명을 그만두고 어디 가서 밥벌이나 하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도 있소. 그러나 말이 쉽지 혁명가가 피를 물고 품었던 초지를 어떻게 그처럼 헐하게야 내던지겠소. 아무튼 무슨 방책이 있어야겠는데 나로서는 궁리가 제대로 떠오르지 않으니 소란스러운 시국만 원망할뿐이요.』

이것은 리청산의 고충인 동시에 나의 고충이기도 하였다. 간도의 모든 혁명가들이 1930년과 1931년 당시에는 이런 고충을 겪었다. 오죽이나 사태가 험악하고 암담했으면 리청산과 같이 성실하고 과묵한 로혁명가가 이런 고백을 했겠는가.

물론 리청산은 혁명을 중도반단하지 않았다. 나는 그후 안도에 가서 리청산을 다시 만났다. 내가 두만강연안의 여러 현들을 돌아다니는 사이 그는 안도구당에 조동되었다고 하였

다. 옹성라자에 있을 때보다는 신수가 별로 멀끔해보였다.

리청산은 새 부임지에서의 일이 잘되어간다고 하면서 몹시 만족해하였다.

『악몽같은 시절은 지나갔소.』

그는 이 한마디 말로 자기의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를 간단히 표현하였다. 사람들이 속을 잘 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던 때의 그 비참하고 침울한 표정은 그의 얼굴에서 도저히 찾아볼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옹성라자에서 리청산을 만날 때 까지만 해도 만주지방의 혁명가들은 백색테로의 쓴맛을 보면서 인민들이 결을 주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다.

나도 역시 그런 고민을 안고 모대기였다. 내가 희멀건 강낭죽에 갓김치를 먹으면서 밤이면 찬바람이 스며드는 남의 집 웃방에 목침을 베고 드러누워 시장기와 싸우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 그 당시 우리를 가장 괴롭히던 고통중의 하나가 다름아닌 이 시장기였다. 실제로 우리는 그때 간도에 나가서 추운 고생, 배고픈 고생을 많이 하였다.

나는 솜옷도 없이 양복차림으로 겨울을 나군 하였기때문에 남들보다 늘 춥게 지냈다. 덮을것이 없는 집에 갔을 때에는 밤에 양복을 벗지 않고 그대로 드러누워 잠을 청하군 하였다. 리청산의 집에 가니 그 집에도 이불과 베개가 없었다. 그래서 양복차림으로 하루밤을 잤는데 너무 추워 잠을 자지 못하였다.

어떻게나 혼났던지 후날 안도에 가서도 그날 밤에 겪은 이야기를 하였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사이에 달구지군들이 입고다니는 저고리 같은 솜저고리를 하나 큼직하게 지어주었다. 나는 그 솜저고리를 입고다니다가 이불이 없는 집에서 잠을 잘 때마다 목침에 손수건을 감아베고 솜저고리를 덮고 새우잠을 자곤 하였다.

그러나 그런 고초쯤은 아무것도 아니였다.

그해 봄 나는 간도로 나가서 어느 하루도 발편 잠을 자본적이 없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춥고 배고파서 잠이 잘 오지 않는데다가 학살당한 동지들에 대한 생각과 파괴된 조직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진정시킬수 없었다.

인민들의 랭대를 받는데서 오는 절망과 고독감이 또한 나를 괴롭히였다. 결을 잘 주지 않는 군중을 보고 돌아와 찬방에 팔베개를 하고 누우면 사람들의 불신을 당하던 광경이 떠올라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간도지방에 큰 기대를 걸어왔다. 연길에는 종파가 많이 들어갔지만 그밖의 간도지방들에는 종파의 물이 그닥 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 지방들에서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 새로운 방식으로 혁명을 전개해나갈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우리 동무들은 여러해동안의 꾸준한 노력과 고심으로 이 일대에서 항일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승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다.

그런데 두차례의 폭동바람에 모처럼 쌓아올린 공든 탑이 크게 손상되였다. 좌경은 초혁명적인 언사와 구호로 대중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키지만 그 해독성은 이처럼 유해롭고 파괴적인 것이였다. 좌경을 뒤집어놓은 우경이라고 표현하는것도 무리한 규정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우리가 만사를 제껴놓고 그토록 총총히 간도로 나온것은 바로 이 좌경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메꾸고 무장투쟁에로 한시바삐 이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다그치자는데 있었다.

큰 기대를 걸고 찾아온 간도의 파괴상이 이처럼 예상외로 참혹한데다가 인민이 또한 혁명가들을 불신하고 멀리하는 사태까지 목격하게 되니 피로와서 견딜수 없었다.

(다음호에 계속)

## 하나를 생각하시여도

### 계산해보신 닭알수

어느해 봄날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하는 일군들이 관상용닭 한마리를 구해 왔을 때 있은 일이다.

여느 닭들과 달리 발뒤축에 여러가지 색깔의 털이 길게 난것이 걸을 땐 여간 재롱스럽지 않아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닭이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산책의 한순간이나마 즐거움을 느끼시며 퍼로를 푸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닭을 정원에 놓아주었다.

어느날 정원을 거니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저 닭이 무슨 닭인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텔발닭이라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그 이름을 따라와우시더니 1년에 알을 얼마나 낳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으로부터 1년에 알을 80알정도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되신 그이께서는 몹시 서운해하시면서 보통 닭은 200~250알을 낳는데 80알을 낳아서야 어디에 쓰겠는가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 일군은 이 닭은 관상용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닭이야 알을 많이 낳아야지 보기나 좋아서 무얼 하겠는가고, 자신께서는 아무리 보기 쉽게 생겨도 알을 많이 낳는 닭이 있으면 매일 보려 나오겠다고 하시며 1년에 알을 한 400알 낳는 닭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알을 공급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인민들에게 덕을 주는것,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신 그이이시였다.

### 가금업도 연구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래전에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다른 나라를 방문하시였다.

어느 일요일 그이께서는 주최측에서 조직한 참관에는 가지지 않고 이미 계획했던대로 한 닭공장을 찾으시였다.

그곳 닭공장지배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도 자기네 공장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기뻐하면서 공장의 생산정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였다. 지배인은 공장에서 많은 닭알을 생산하여 자체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서 여러 지방에도 보내준다고 자랑하였다.

그이께서는 그 닭공장을 돌아보시면서 닭을 공업적방법으로 길러서 인민들에게 알과 고기를 많이 먹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시였으며 조국에 돌아오시는 길로 닭공장건설에 착공하여 공장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하지만 공장에서는 닭알생산경험이 부족하여 알생산이 잘되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가금업을 연구하기 시작하시였다. 공업적방법으로 알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한 책이라면 시간을 쪼개가시며 다 보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이께서는 외국에서 출판한 어느 한 기술서적을 보시다가 닭에게 미량원소가 들어있는 미량첨가제를 먹이면 해빛을 쪼이지 못하여도 알을 잘 낳는다고 써여져있는 대목을 발견하시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였다.

그렇게도 고심하며 찾으시던 자료를 손에 쥐신 그이의 기쁨은 한량없이 크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날로 평양으로 떠나시였다.

가금업부문 일군들과 학자들을 어느 한 닭공장에 모이도록 하신 그이께서는 그곳에 나가시여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미량원소라는 것이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는 가금업박사가 한명도 없었다. 이제 겨우 가금업과 관련한 책의 첫 폐지를 펼쳐보기 시작한 사람들뿐이였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가정에서 닭을 몇마리씩 기르는데 불과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공업적방법이란 생각조차도 못한 일이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나라의 가금업을 떠메고나가자면 많이 알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미량첨가제를 해결할 방도를 탐구하여 닭공장의 닭들이 알을 많이 낳도록 하였다.

그후 조국에는 수많은 가금공장들이 전국도처에 일떠서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슬기

## 그날의 당부를 잊지 않고

해마다 7월을 맞이할 때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칩니다.

특히 나지막한 산을 등지고 들어앉은 농장마을들과 바둑판 같은 포전들을 매일 아침 바라볼 때면 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 젖어들군 합니다.

나라일을 돌보셔야 하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수십여 차례나 우리 농장에 찾아오시여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와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해인 주체34(1945)년부터 주체74(1985)년까지 우리 농장을 무려 40여 차례나 찾아주시였습니다.

지금도 눈만 감으면 해방된 그해 10월 농장에 찾아오시여 여러분은 농사를 잘 지어 알곡을 많이 증산함으로써 전국사업에 크게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시던 그이의 절절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해방전 그처럼 고생을 많이 한 농민들을 잘 살게 해주시려고 한평생 포전길을 많이 걸으시였습니다.

우리 농장에만도 그이께서는 주체35(1946)년에는 3차례, 그 다음해에는 4차례나 찾아주시였으며 전쟁시기에도 찾으시였습니다.

지난 시기에 비해 경지면적이 훨씬 늘어나고 논과 밭들이 규격 포전으로 전변되어 해마다 농작물생산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전후시기인 주체45(1956)년 1월 농장(당시 만경대농업협동조합)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분배정형을 알아보시고는 우리 농민들이 흰쌀밥을 먹게 되었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벼섯재배장, 양어장까지 건설하여 농촌경리를 다각적

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농장의 농사정형과 농업근로자들의 생활형편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묵해하시면서 다수학의 지름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습니다.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알곡뿐 아니라 고기와 과일, 남새도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서와 남새밭에 판수를 잘하고 참외와 수박, 딸기를 많이 심으며 양어에 힘을 넣고 벼섯생산을 장려할데 대한 문제, 토지정리를 잘하며 농산작업을 기계화, 화학화하고 문화주택도 많이 지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그이이시였습니다.

주체60(1971)년 4월에 농장의 제8작업반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손수 벼모를 뽑아 벼모잎까지 세여보시고는 농장원들에게 잎이 5~6잎될 때 모를 내야 논벼수확이 높아진다고 일일이 가르쳐주기도 하시였습니다.

정말이지 농장의 그 어디에나 그이의 발자취가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농장을 마음속에 안고계시며 농민들이 더 잘살도록 하기 위한 쉬임없는 현지지도와 어버이사랑에 의하여 오늘 우리 농장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남새전문농장으로 전변된 후 농장에서는 갖가지 남새들을 생산하여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 전문농장 관리위원장 김영복



으로 발전시키고있습니다.

농장원들은 농업과학기술보급실에서 농업과학기술을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습득하면서 과학농사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논수평 같이보습, 벼영양단지모내는 기계를 비롯한 능률적인 농기계들도 창안하여 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은 몇해째 다수학 농장의 영예를 지니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리부락에 건설한 조선식 살림집들을 비롯하여 농장마을마다에 문화주택들이 일떠서고 문화회관, 편의봉사시설 등이 건설되어 농장원들의 생활은 나날이 향상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농장으로는 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찾아오고있습니다.

우리 농장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그 어느 단위보다 많이 깃들어있는 일터에서 일한다는 궁지가 남달리 큅니다. 이것은 그이의 유훈관찰전으로 이어지고있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 농장이 그 어느 단위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 매혹과 탄복, 열렬한 환대

조선과 웨남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두 나라사이에 맺어진 친선의 뉴대는 60여년 세월이 흘러간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웨남의 수도 하노이에 차넘친 위인 흄모의 열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게 될 웨남의 수도 하노이를 방문하고 계시였다.

세계의 이목은 삽시에 웨남사회주의공화국에 집중되었다.

주체 39(1950)년 1월 31일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은 두나라는 오래동안 친선관계를 유지하여오고 있다.

웨남의 당과 정부,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존경과 흄모의 마음을 안고 그이의 대외 활동을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정중히 보장해드렸다.

그이께서 열차로 웨남의 국경역인 동당역에 들어서실 때부터 수도 하노이에 이르는 수백리로 정우에 전례없는 성대한 영접과 환영이 펼쳐졌다.

웨남정부는 국가의례 규정을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높은 급 간부들이 하노이에서 165km 떨어진 동당역에서 그이를 영접하고 전송하여 드리도록 하였다.

그이를 열렬히 환영하는 웨남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모시였던 그날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금으로부터 61년전과 55년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신 웨남 방문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역사적인 사변으로 되었다.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날들에 새겨진 김일성주석에 대한 웨남인민들의 매혹과 찬탄은 참으로 뜨겁고 열렬하였다.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천리마의 기상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하도록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주석께 매혹된 웨남의 인민들은 그이께서 가시는 곳마다에 존경의 마음을 안고 떨쳐나와 꽃묶음과 두 나라

기발을 흔들며 열렬히 환영하였다.

이렇게 두 나라사이의 선린우호관계의 새로운 력사를 개척하시고 발전시켜오신 주석께서는 그후에도 웨남인민이 반제 반미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도록 물심 향면의 지원을 주시였다.

주석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수십 차례나 웨남대표단들을 접견해주시었으며 웨남인민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도 아낌없이 보내주시였다.

김일성주석의 참다운 국제주의적 품모는 웨남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며 그것은 또한 분위기로 분출되었다.

웨남의 당과 정부에서 이미 환영 군중동원 사업을 수십년 전에 폐지시키였지만 수천 명의 인민들과 학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연도들에 떨쳐나와 두 나라 기발과 꽃을 흔들면서 친선과 단결, 화목의 염원을 담아 그이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리고 군악대가 특별히 환영곡까지 울리여 거리의 환영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당총비서인 웬 푸 쫑 국가주석을 비롯한 웨남지도간부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특히 정부수상은 정부청사의 기본홀에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웨남지도자들과 진행하신 대외활동사진 문헌들을 특별히 모시도록 하였다.

동당역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모시기 위하여 전면보수되었다. 그리고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장식되어 정중성과 환영 분위기를 살려주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웨남정부는 동당역에서 하노이에 이르는 165km 전 구간에 대한 안전대책을 면밀하게 세웠으며 번잡한 동당역-하노이 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취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웨남인민의 이처럼 뜨겁고 열렬한 매혹과 찬탄, 환대는 두 나라사이에 맺어진 친선의 정이 앞으로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연옥

# 조선의 하늘을 믿어야 한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 선생님께서 림강을 중심으로 혁명 활동을 벌리실 때의 일이다.

주체 9(1920)년 여름 어느 날 김형직 선생님께서는 조직을 통해 림강현 다무성(당시) 사람들 속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중에서도 송목사가 유력자라는 것과 그를 교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조직 성원들에게 일제를 타도하고 새 사회를 세우자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열을 많이 늘여야 한다고 하시며 반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인내성 있게 교양하여 혁명의 편에站이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다무성에 있는 전도사를 통하여 송목사를 교양하기로 하시였다.

어느 날 전도사를 만나신 그이께서는 조선 사람은 종교를 믿어도 자기의 종교를 믿고 일제를 반대하는 교를 믿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종교가 세상에 전파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나라 종교인들은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를 드렸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의 신도의 의무라고 하시였다.

이에 탄복한 전도사는 송목사를 만나는 기회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그에게 해설해 주었다.

그이께서는 송목사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있던 어느 날 그를 만나시여 이야기를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목사가 방금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잘살게 하고 빈부의 차가 없어지게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하자면 <하느님> 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한들을 다 없애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 사람들은 살래야 살길이 없고 죽어서 묻힐 땅마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제 때문입니다.

남의 나라를 강점한 악귀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가난하고 천대 받는 사람들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이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는 각계층 민중을 어떻게 단합시키며 강적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싸워야 승산이 없는 일이며 무의미한 희생이나 가져올 뿐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는 그에게 그이께서는 3·1 운동의 교훈은 일제는 결코 조선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주지 않으며 일제를 몰아내야 조선 사람이 다 잘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민중의 힘을 단합해야 강대한 일제를 몰아낼 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지금 많은 독립운동자들이 무장 활동으로 도처에서 일제를 죽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힘을 키우면 나라의 독립을 반드시 이루 할 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후 어느 날 그이께서는 송목사를 비롯한 이 일대의 종교인들 앞에서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신도들은 조선 사람이라는 근본을 잊지 말고 일제와 싸우기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무엇때문에 제 나라, 제 땅에서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낯선 이역땅에 와서 다른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늘을 믿어도 조선의 하늘을 믿어야 합니다. 조선의 하늘을 믿으라는 것은 조선이 독립되고 부강하기를 믿어야 하며 조선 민족이 존엄 있게 살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제의 학정 밑에서 침략자들이 <자선>을 베풀어 조선 독립을 가져다주리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후에도 자주 이곳 레배당과 강계와 자성에 있는 레배당 그리고 법동마을에 있는 삼성의 숙도 찾으신 그이께서는 종교인들 속에서 정치 선전 활동을 벌리시여 그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으로站이세우시였다.

본사기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야경

# 자력갱생을 동력으로

자력갱생은 조국에서 투쟁의 기치,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조국인민은 언제나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왔다.

오늘 조국은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제재를 받고 있지만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다.

자력갱생은 사회주의건설의 전환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위력한 동력이다. 그것은 자력갱생이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전환기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방략이고 발전방식이기 때문이다.

민족이 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한 사람들은 민족 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며 경제건설도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이 추진되게 된다.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인 인민의 힘을 강화하는 최상의 방도는 자력갱생, 자급자족하는데 있다. 남을 쳐다볼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조이며 창조한 자기의 것,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대한 믿음과 애착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야 주체적력량을 불폐의 것으로 다지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적대세력들의 강권과 침략으로 영토가 전쟁터로 화하고 민족이 분렬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경제 역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지 못하여 외세가 재채기만 해도 어떤 나라들에서는 오열로 앓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것은 다재힘이 약한데 있다.

자력갱생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전례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하는 동력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에서 조국앞에 나서고있는 중심파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것이다. 경제적자립은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이다. 자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에 의해서만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군사적위력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

오늘의 정치정세흐름은 조국으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 부족한것도 많고 없는것도 적지 않다. 더욱이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강도높은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

현 조건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목표들

을 최단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번영의 길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 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자력갱생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전례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자력갱생은 사회주의건설을 저해하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수 있게 하는 동력으로 된다.

적대세력들은 한편으로는 관계개선과 평화의 보따리를 만지작거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제재에 매여달리면서 어떻게 하나 조국이 가는 길을 돌려세우고 선 무장해제, 후 제도전복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적대세력들이 사회주의건설을 말살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는 오늘 그들의 책동을 여지없이 짓부셔버리는 유일무이한 무기는 자력갱생, 자급자족하는데 있다.

적대세력들의 장기간에 걸친 핵위협을 종식시킨것을 비롯하여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된것은 조국인민이 지닌 자력갱생정신의 승리인 것이다.

지금 공화국에는 최단기간내에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선진수준으로 도약할수 있는 자립적발전능력과 기반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수십년간 다져온 자립경제토대와 능력있는 과학기술력량, 자력갱생을 체질화하고 애국의 열의로 피끓는 인민의 창조적힘은 조국의 귀중한 전략적자원이라고 하시면서 이 거대하고도 무한대한 잠재력을 총폭발시킬 때 조국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신화를 창조하게 될것이며 남들을 앞서 더 높이 비약해나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자력갱생이야말로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을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리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전환기를 열어나가게 하는 동력으로 된다.

조국인민들은 어제도 오늘도 그려하였던것처럼 래일도 변함없이 사회주의건설의 동력인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게 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박사 김경철

# 모방직제를 생산자들

인재와 과학기술을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국에서는 어디 가나 과학기술열풍이 세차게 일고 있다.

합흥모방직공장에서도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와 경제봉쇄로 생산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지만 과학기술로 모든것을 뚫고나가고 있다.

이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날로 발전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위해 과학기술을 앞세워 다양한 모방직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종업원들이 국가콤판터망과 연결된 과학기술보급실에서 현대과학기술을 탐구하여 생산실천에 구현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군들이 남먼저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

자 종업원들속에서도 향학열이 높아져 원격교육대학 입학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원격교육대학 학생들은 매일 하루일이 끝나면 컴퓨터망을 통

동자발명가들도 나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 종업원들은 과학기술을 적극 앞세워나가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을 간직하게 되었다.

1직포직장 직포공 정옥실, 주정화, 조은희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여러 기대들을 맡아보고있으며 직포준비직장의 연사공들과 견절방직직장 권사공들은 집단적경쟁열풍을 일으켜 생산성과를 높이고 있다.

과학기술을 적극 앞세우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합흥모방직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금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전민총돌격전, 총결사전을 벌릴데 대한 강원도인민들의 호소따라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본사기자 려해





소학교부문 분기탁구경기에서 단체 1등을 생취하고

## 소조원들의 마음

평양시의 모란봉구역 민홍소학교는 전국적으로 탁구선수후비육성사업을 잘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시기 학교에서는 인민체육인 리형일, 공훈체육인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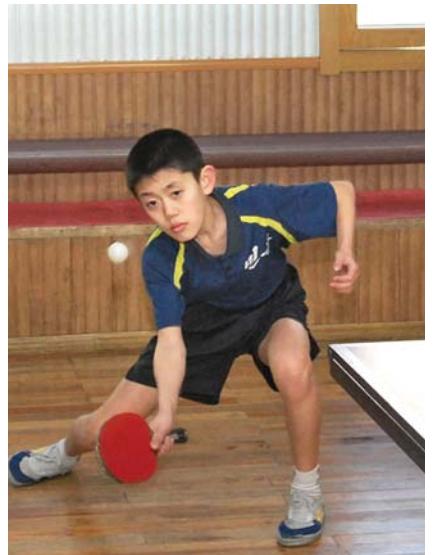
연옥 등 이름있는 선수들을 배출한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전국소학교체육학급경기 대회 탁구경기에서 우승을 쟁취하였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이 학

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크다.

우리와 만난 이 학교의 탁구지도교원 전혁철은 말하였다.

『지금 체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선



수들을 잘 키우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선수선발과 육성에 많은 힘을 넣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소조원들의 훈련정형과 기술준비 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었다.

소조에서는 파외소조의 특성과 진취성이 강한 소조원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훈련시간과 내용을 과학적으로 조직하고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었다.

소조에서는 매 소조원들의 육체적능력과 기술수준을 파악한데 기초하여 바로치기, 걸어치기, 깍아치기 등 각종 공차기 기술과 이동과 결합, 쳐넣기를 비롯하여 기초기술동작들을 원만히 습득하도록 집체훈련과 개별훈련을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고있다.

특히 단식, 복식경기들에서 활용되는 전술훈련들을 강화하여 매 소조원들이 공격과 방어,

반공격전술을 정황과 때에 맞게 정확히 활용할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있다.

하기에 많은 소조원들의 육체적능력과 기술수준이 날이 갈에 따라 높아지고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해 구역적으로 진행된 소학교부문 분기탁구경기에서 단식 1등을 쟁취하고 단체 1등을 하는데 크게 기여한 리현위, 장평원소조원들을 통해서 잘 알수 있었다.

지도교원의 말에 의하면 리현위소조원은 원래 쳐넣기 및 3구걸어치기공격이 좋은 반면에 왼쪽밀어치기가 약하였다.

그래서 소조에서는 리현위소조원의 특성에 맞게 집중공훈련 및 걸어치기훈련과 여러가지 회전변화훈련을 기본으로 주어 기술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는데 힘을 넣었다.

장평원소조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소조에서는 그의 특기인 좌우결합 및 반공격과 걸어치기의 실수률을 높이기 위해 집중공훈련을 기본으로 주어 기술

을 더욱 세련시키도록 하였다.

그런가 하면 소조에서는 김여명, 강일미, 강호령 등 수십 명에 달하는 소조원들에게 탁구경기와 훈련에서 나서는 원리와 방법상문제들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실지 훈련을 통해 부단히 련마시켜 실력을 높여나가고있다.

지금 이 학교의 소조원들은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세계적인 탁구강자들로 자라나 세계의 하늘가에 람홍색 공화국기를 펼칠 휘날리려는 하나의 마음으로 출발음치고있다.

우리는 강일미소조원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하고 세계의 하늘가에 우리의 공화국기발을 펼칠 휘날리는 오빠, 언니들처럼 나도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려 앞으로 조국이 알고 세계가 아는 탁구강자가 되겠습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소조원들

### 상식

## 동백기름

동백기름은 동백나무의 열매에서 뽑아낸 기름이다. 기름에는 올레인산의 글리세리드가 있는데 그것은 독특한 향기를 풍긴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이것을 생활에 적절하게利用하였다.

녀성들은 동백기름으로 머리단장하는것을 즐기였다. 특히 처녀들은 길게 드리운 머리칼에 향긋한 냄새가 나는 동백기름을 발라 항상 머리칼이 윤기나게 하는것을 자랑으로 여기였다.

시집 간 여인들은 동백기름을 머리칼에 발라 단정한 머리꾸밈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웃차림새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동백기름은 이밖에 약재나 비누를 만드는데도 이용되었다.

\* \* \*



## 약수로 목치료를 한다

300여년전, 강서땅의 한 농부가 논판가까이에서 한마리의 학이 땅속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면서 상한 다리를 고치는 것을 직접 본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후부터 사람들속에 알려진 이 이야기가 하나의 전설로 전해지고 있는 강서약수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그러한 약수를 음료로만 생산하던 강서약수공장에 옥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목욕탕이 새로 건설되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우리와 만난 책임자 김영순은 『우리 약수목욕탕은 위병, 피부병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할수 있는 대중 치료기지이다. 봉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약수목욕탕은 남, 여목욕실,

의사실, 운동실, 식당 그리고 여러날 묵으면서 치료예방을 목적한 사람들을 위한 침실도 갖추어져있어 손님들의 편의를 최대로 도모해주고 있다.

의사 안혜란은 강서약수로 옥치료를 하면 유리탄산가스가 피부를 통하여 몸에 흡수되어 피속에서 생리적기능에 영향을 주는 한편 피하에



서 활성물질을 만들게 되므로 고혈압, 비만증, 경한 당뇨병, 심장혈관계통, 위장, 간장, 쥐장, 식물신경계통,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39°C정도로 덥힌 약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목욕실에는 건식, 습식한증파 함께 약수로 전신



말하였다.

환자들속에는 2~3일 혹은 치료효과가 나타나는데 따라 20~25일동안 숙식하면서 옥치료를 받고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평양시 서성구역 련못동 72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주일은 20일전까지만 해도 혈압과 위장애, 관절염을 앓았는데 약수도 마시고 장세척과 약수목욕을 꾸준히 하여 이제는 병이 호전되었다고 말하였다.

지금 이곳으로는 평양시와 남포시뿐만아니라 함흥과 혜산, 신의주를 비롯한 지방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있다.

조선의 관광로정인 강서세무덤으로 가는 길에 강서약수가 있는것으로 하여 약수목욕탕은 국내 와 해외관광객들의 인기를 더욱 끌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옥을 할수 있는 나무통수조들도 있다.

평양시 평천구역 미래동에서 살고있는 김윤희녀성은 강서약수가 들어있는 나무통수조안에 10분정도 있었는데 머리가 거뜬한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만성적인 위병으로 하여 오래동안 신고하여왔는데 이곳에서 며칠간 약수도 마시고 옥치료도 집중적으로 받은 결과 이제는 많이 나아졌다고 기쁨에 넘쳐

# 호평받는 천연건강제품들

최근 사람들 속에서 천연건강제품들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서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의학연구원 천연건강제품 회사에서 개발된 천연제품들이 그 대표적이다. 제품들 중에는 천연교감약들도 있는

데 약들은 어느것이나 그 효파성으로 하여 사람들의 의혹감을 풀어주고 병치료에 신심을 더해 주고 있다.



자연계에서 3원색으로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내듯이 이 세 가지 약을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함께 쓰면 심장혈관계통, 소화기계통, 간담도계통을 비롯한 5장6부의 모든 기능을 평형화하여 병의 근원을 제거해 줌으로써 종합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얼마전에 평양시 모란봉구역 월향동에 사는 10살 난 리성림 어린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앓은뱅이가 되었는데 이 천연약들을 쓰기 시작하여 28일째 되는 날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대지를 활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의 어머니는 활기에 넘쳐 말하였다.

천연약들의 덕을 본 사람들 은 하나와 같이 《정말 특이한 약이다.》, 《고려약은 일반적으로 사용후 여러 날이 지나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회사의 약들은 먹은 후 인증 반응이 나타나는데 참 신기할 정도이다.》 라며 감탄한다.

약조성이 단삼, 칡뿌리, 금은화, 만년버섯, 대추잎 등 100% 순수한 천연약재로 되어있고 선조들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전통의 학리론과 방법에 기초하여 최신약제조기술로 조화롭게 추출해 합시킨 약들은 신약과 이전 시기에 나온 고려약의 제한성과 부족점을 극복하고 적은량을 복용하면서도 치료효과가 빨리 나타나게 한다.

머리가 아프다면 머리를, 다



제품에 대한 손님들의 반향도 알아본다.

리가 아프다면 다리를 치료하는 종전의 치료방법에서 벗어나 음파 양의 평형을 맞추면서 5장6부의 균형을 보장해나가는 것이 이 천연약제의 작용특성이다.

회사의 김명숙연구사는 이 약들을 쓸 때 미음료법과 약간의 달리기를 배합하면 치료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환자들에게 이 루틴을 적용할 것을 특별히 권고한다.

이외에도 회사에서는 효능높은 정향특발성파저외용약과 천연간상선교감약 등의 약품들을 생산하는 것과 함께 천연미안막과 천연살결물, 천연활곡차 등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여러 가지 천연기능성화장품과 천연건강식품들도 개발하여 국내에서 10여 개의 특허권을 받았다.

신기한 비방에 대해 묻는 기자의 물음에 전영란사장은 같은 약재라도 어떤 비율로 어떻게 제조하는가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진다고 하면서 그 이상

은 말할 수 없다며 너그럽게 웃기도 하였다.

회사가 설립된지는 오래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지만 이곳에서 생산되는 천연제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성파의 비결은 회사의 경영 전략과 박사, 석사학위소유자들로 꾸려진 쟁쟁한 연구집단이 고려의학과 현대의학을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에 구현해 나간데 있다.

전영란사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에 있는 것을 인정시키기는 쉬운 일이지만 없는 것을 만들기란 힘들다.

우리는 앞으로 성파에 자만하지 않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담보하는 우리식의 새로운 천연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겠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 흔경받는 교육사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갈  
열의를 안고 학생들의 밀거울  
이 되는 교원들중에는 조명성  
금성제2중학교 프로그램개발  
강좌 교원도 있다.

올해 나이가 30살이지만 그  
는 높은 교육자적 자질을 소유  
하여 학생들에 대한 수업을 언  
제나 흥미진진하게 하고 그들  
에게 있어 기다려지는 시간으  
로 만들고 있다.

짧은 수업시간동안에 학생  
들의 개성을 파악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우점을 살려나가면서  
문제파악을 정확히 하도록 이  
끌어주는 그의 강의는 매번 참  
신하다.

그는 학생들이 프로그램들  
을 대하여서 의존심을 버리고  
제 머리로 끌까지 사고하고 풀  
어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모르는  
문제는 그날로 꼭 알고 넘어가

학생들과 함께 있는 조명성(가운데)



도록 하고 있다.  
그의 머리속에는 교원의 자  
질과 능력에 의해 학생들이 앞  
으로 사회에서 제구실을 하는  
가 그렇지 못한가가 달려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니니 그가 담임하였던  
초급반 학급은 학년적으로 제  
일 공부를 잘하는 학급으로 되  
였으며 최유성, 김지훈, 고룡  
일 학생들은 고급반으로 올라가  
서도 실력에서 언제나 앞자리  
를 차지하고 있다.

어철호 프로그램개발강좌 강  
좌장은 『교육자적 자질은 년한  
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실력에 의해 안받침된다. 최우  
등생이 최우등생을 키운다고  
조명성교원은 학생때부터 최우  
수학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  
였다.

과학기술분야의 대학교육파  
정을 마치고 모교인 학교의 교  
단에 선 그는 과학탐구와 교육  
사업에 전심전력하였다.

이 나날 그는 전문가들과 함  
께 『금융IC카드결제체계』를  
개발하여 전국에 도입하고  
가치있는 여러건의 논문들도  
발표하였으며 담당한 학생들  
을 프로그램개발과 수학, 외  
국어 등 여러 분야의 당당한  
실력가들로 키워냈고 김일성  
청년영예상수상자의 영예도  
지니였다.

그는 오늘도 재능있는 실  
력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하여 자기가 선 교단을 더  
없이 소중히 여기고 있다.

글 본사기자 염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김영희사촌동생 앞

## 부모님처럼 한생을 빛내여갑시다

보고싶은 동생, 그동안 잘 있었소.

오늘도 애국사업에 헌신하고 있을 동생의 모습을 그려보며 이렇게 펜을 들었소. 조카인 상이의 건강은 어떠한지, 몹시 걱정되누만.

언제 한번 동생을 만나 혈육의 정도 나누고 조카의 병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만.

조카가 그렇게 된데는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딸자식에 대한 관심을 덜 돌린데도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되네. 아무쪼록 상이의 건강을 잘 돌봐주기를 바라네. 그저 일만 일이라고 하지 말고.



돌이켜보면 동생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판산  
지부 지부장사업을 하며 애국사업에 헌신하던  
이모부를 꼭닮은 것 같소. 대끝에서 대가 나온  
다고 이모부의 넋을 바통으로 이어받은 동생이  
달리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오.

나도 시에서 건설일군으로 일하다가 순직한  
아버지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소.

동생도 아다실이 난 군사임무수행 중에 한활  
을 잃었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군사복무를 계  
속 할 수 없다고 하였소. 하지만 나는 정신육체  
적고통들을 이겨내면서 조국보위의 초소를 떠  
나지 않았소.

그때 나에게 힘과 고무를 준 것은 눈속에 묻힌

대도 푸름을 잊지 않는 소나무처럼 비록 한활이  
없다고 해도 끗끗이 살기를 바란다는 아버지의  
유언이였소. 건설장에서 순직하며 하신 아버지  
의 유언을 전달받고 나는 맹세했소. 오로지 사  
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 한몸을 불태운 아버지  
처럼 살겠다고 말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보람이라고 생각했소.

군사복무를 할 때도 그래 제대된 후에도 그래  
나는 그 맹세를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고  
있소. 사실 나는 영예군인수속을 하고 국가적혜  
택을 받으며 편히 살 수도 있었소. 그러나 나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자원진출하였소.

사업소에서 나는 동지들의 방조속에 인츰 시  
안의 상하수도계통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할 때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깊  
이 느끼게 되고 또 보람도 생기오.

동생,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때면  
일을 더 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군 하오.

그래 늘 현장에서 살다실이 하며 힘든 줄 모르고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사실 내가 동생이 제 자식에게 관심을 덜 돌  
렸다고 말하였지만 난 더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 같소. 집사람이 나에게 진정을 바쳐가면서  
자식을 키우느라 정말 수고를 많이 하였소.  
그리면서도 집걱정말고 맡은 일에만 전심전력  
하라고 하는 그의 말없는 당부와 방조속에 나  
는 오늘까지 아버지 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갈  
수 있었소.

동생, 두서없이 이야기했소. 그저 우리의 부  
모님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나는 조국에서, 동  
생은 해외에서 조국을 위해 한생을 빛내여가자  
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싶었을 뿐이요.

그럼 이만 펜을 놓겠소.

안녕히 잘 있소.

평안북도 구성시 청년동 15인민반  
김창봉오빠로부터

# 과학기술로 발전해가는 구역

지난해 가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할빈지구협회 부회장 박홍근동포는 평양에 있는 친척들과 상봉을 하였다.

사촌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박동포는 자기 고향 함흥에 가본지도 이제는 퍼그나 세월이 흘렀다고 말하였다.

그토록 고향에 가보고 싶어 한 박홍근동포의 말을 되새기며 우리는 얼마전 함흥시로 취재차를 달리였다.

우리를 반겨맞아준 시의 일군은 나라의 중요공업지구의 하나로 손꼽히는 함흥시를 다소개하자면 며칠이 걸려도 모자랄것이라고 하면서 과학기술열풍이 어느곳에서보다 세차게 일고있는 회상구역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되여 우리의 취재

길은 회상구역으로 향하게 되었다.

회상구역에는 국가과학원 함흥분원과 같은 과학연구기지,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함흥의학대학을 비롯한 대학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함흥모방직공장,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성천강가방공장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병원들도 규모있게 들어앉아있었다.

우리는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부터 찾았다.

신동철 대학부총장은 『주체36(1947)년 9월에 창립된 우리 대학은 지난 기간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을 떠메고나갈 기술인재들을 수많이 키워냈습니다.』라고 하면서 영웅소개판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영웅소개판에는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 이바지하여 영웅이 된 대학의 졸업생들의 사진과 이름이 나붙어있었다.

지금 이 대학의 학생들은 다음번 영웅은 자기가 되겠다는 열의를 안고 과학탐구의 높은령마루를 향하여 배우고 또 배워나가고있었다.

최근 이 대학에서는 탄소하나화학공학파, 촉매화학공학파, 기계전자공학파를 새로 나오고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해나가고 있었다.

강의실과 실험실들, 전자로서관을 돌아본 우리에게 부총장은 대학구내에 번듯하게 일떠서고있는 새 청사가 바로 화학실험관이라고 하면서 이제 개관되면 앞으로 대학의 교육수준과 학생들의 실력은 더 높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에서



아지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과학기술열풍이 일고있는 구역의 류다른 모습을 우리는 뒤이어 찾은 성천강가방공장에서도 보게 되였다.

공장은 조업된지 2년도 안되었다. 하지만 공장의 제품들은 얼마전에 진행된 전국적인 가방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공장의 종업원들이 과학기술보급실에서 과학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생산에 적극 도입해나간데 있었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과학기술보급실과 원격교육대학에서 새기술을 탐구하고 배운 지식에 기초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였으며 그 과정에 많은 창의고안들이 현실에서 은을 내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함흥정형외과병



로라스케트장에서

원파 함경남도인민병원, 함흥치과병원의 의료일군들도 과학

을 터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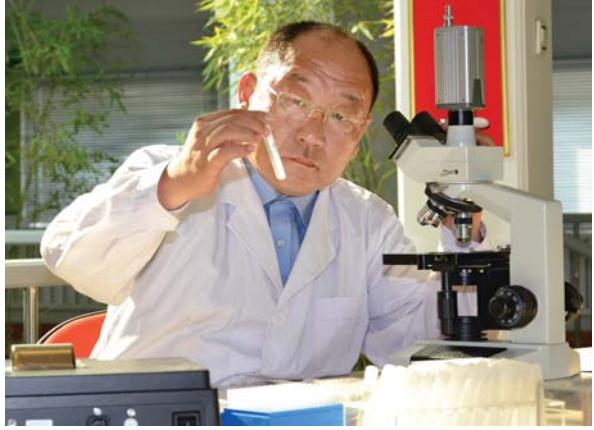
구역에는 또한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의 과학자들이 보금자리를 떴다는 새 거리-과학자거리가 일떠서 과학기술로 발전해가는 이 구역의 래일을 염불 수 있게 하고있었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과학자들을 위한 새 거리가 일떠섰다.



## 그 마음이 애국이라



조룡철

끌이 보이지 않을 상실계 무연한 대동강파수 종합농장 사과밭사이의 도로로 한대의 승용차가 달리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 조향륜을 잡은 환갑나이의 사람은 대동강돼지공장 지배인 조룡철이였다.

이제는 이 길을 눈을 감고도 지날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날따라 조룡철지배인은 불현듯 떠 오르는 추억을 안고 이윽토록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다.

18년 전 바로 그때였다.

평양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축산파는 거리가 먼 부문에서 사업하고 있던 그는 다른 나라에 출장갔다가 우연히 우량종돼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돼지는 다른 돼지보다 증체률이 대단히 높고 몸집도 커 있으며 한배에 낳는 새끼마리수가 많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다.

견물생심이라고 우량종돼지를 보니 그는 구미가 부

쩍 동했다. 자기가 직접 돼지를 키우고 싶었던 것이었다.

주위의 사람들은 성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벌려놓았다가 랑패를 보면 어찌겠는가고 하면서 박수를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나라의 축산업 발전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여 인민생활향상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크든 작든, 누가 알아주건 말건 기어이 해보고 싶었다.

사랑에는 믿음이 따르고 믿음에는 보답이 따르기 마련이였다.

해방전 그의 부모는 중국의 만주광야에서 막돌처럼 굴러다니며 나라없는 설음을 겪어왔다.

중국의 길림성 연길시에서 살던 그는 주체 51(1962)년 부모와 함께 조국의 품에 안긴 때로부터 진정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의 사무실과 집에서는 밤깊도록 불빛이 꺼질 줄 몰랐다. 생물학, 축산학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그가 읽은 과학기술서적들은 날

《애국풀》에 의한 사료문제해결을 위해



을 따라 늘어만 갔다. 그는 돼지사양관리도 직접 해보면서 자기가 배운 내용에 대한 리해의 폭을 넓혀나갔다.

우량종돼지기르기에 대한 일정한 파악이 생기 였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우량종돼지를 풍토순화시키고 보존하며 널리 퍼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기지를 일떠세워야 하였다.

세멘트와 강재, 설비들을 구입하자면 많은 노력과 자금이 들어야 하였다.

하지만 공민적의무감을 안고 스스로 이 길에 들어선 그는 끝내 우량종돼지를 보존하고 널리 퍼칠 수 있는 충분한 물질기술적 조건을 갖춘 돼지공장을 일떠세웠다.

대동강돼지공장은 파수와 축산, 축산파 파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구축되어 파일생산과 고기생산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의 과학화, 정보화, 자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먹이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고 고기맛이 좋은 우량종돼지를 육종, 보존할 수 있는 우리 식의 체계를 세워놓았으며 최신 인공 수정기술을 도입하여 수퇘지를 많이 기르지 않고 우량종돼지를 짧은 기간에 대대적으로 퍼

칠 수 있게 하였다.

하여 대동강돼지공장은 더욱더 용을 쓰며 고기생산계획을 일별, 주별, 월별로 어김없이 수행 할 뿐 아니라 공장의 돼지고기와 고기가공품들은 그 맛이 좋아 해외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조룡철의 추억의 배는 그가 탄 승용차가 대동강돼지공장안으로 들어서는 것과 함께 둑을 내리게 되였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 말건 공민적의무감을 안고 불같은 헌신을 기울여 스스로 짐을 걸 머지려는 그 마음이 바로 애국이다.

한쪽의 그림마냥 아름다운 공장의 여러 호동들마다에 귀여운 새끼돼지며 살찐 돼지들이 마치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아 조룡철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빨라졌다.

나라의 축산업 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훌륭한 일을 맡아하는 길에 새겨진 불같은 헌신은 조룡철과 같은 애국자들이 있어 우리 조국이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고 있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 상식

#### 이발보호방법 몇 가지

- 이발은 3분이상 닦아야 한다.
- 아침과 저녁에 치솔질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녁에 잠을 잘 때에는 타액분비량이 적으

- 므로 이발사이에 끼여있던 음식찌꺼기가 쉽게 발효변질되면서 이발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솔질은 아침과 저녁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일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녁만이라도 꼭 치솔질을 해야 한다.
- 아침저녁으로 이발맞쫓기를 하

이발을 마주 쪼으면 이발의 충격으로 하여 이발주변조직의 피순환이 활발해지므로 이발이 든든해지고 질병이 미연에 방지된다. 이발맞쫓기는 입을 벌렸다다물었다하면서 소리가 들릴 정도로 힘을 주어 아래우의 이발이 맞부딪치게 해야 한다.

\* \* \*



참관기

## 2019년 중국 베이징 세계원 예박람회 조선원을 찾아서

얼마전 본사취재단은 2019년 중국 베이징 세계원 예박람회장의 세계원 예전시구에 위치한 조선원을 참관하게 되었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전시원들과 이웃하고 있는 조선원에 이르니 많은 사람들이 봄비고 있었다.

조선 김일성화 김정일화 위원회 대표단 단장인 김세홍이 우리를 맞이해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지난 4월 29일에 개원된 박람회가 10월 7일까지 계속된다고 말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2019년 중국 베이징 세계원 예박람회의 기본주제는 《록색 생활,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한다. 자연과 어울린 아름다운 생활을 가꾸어 가려는 사람들의 널원은 평화로운 생활환경이 주어질 때라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조선원은 이러한 리념을 자기의 주제로 하고 있었다.

넓은 부지면적에 자리잡고 있는 조선원은 야외



정원과 민족적 특색을 살린 실내전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야외정원은 아담하고 현대감이 나는 두개의 정자와 갖가지 화려한 꽃들과 기이한 모양의 나무들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따뜻한 감을 주었다. 정원의 한복판에서는 여러개의 분수가 하늘로 나래쳐 오르는 5마리의 비둘기들을 형상한 상징탑을 향해 물보라를 뿜어 올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친선을 염원하는 조선인민의 지향을 잘 알 수 있다며 상징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참관자들이 많다는 우리의 말에 김세홍 단장은 개원 후 며칠 동안에만도 벌써 수만명의 사람들이 조선원으로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였다.

『조선원에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피어났다는 소문이 온 중국땅에 다 퍼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참관자들이 꼬리를 물고 조선원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우리도 참관자들과 함께 맑은 물이 흐르는 수로우에 놓인 작은 나무다리를 지나 실내전시장으로 향했다.

실내전시장의 중심에는 수십상의 김일성화, 김정일화들이 전시되어 꽃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과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이 꽃들은 지난 기간 세계적인 원예 박람회, 화초전시회들에 참가하여 특별상과 최고상, 최고전시품상을 수상 차례나 수여 받았다.

김일성화가 주석의 넓으신 도량과 인품을 그대로 닮았다면 김정일화는 김정일 장군님의 담대

한 기백과 열정을 엿볼수 있게 한다는 것이 참관자들의 일치한 소감이었다.

수많은 참관자들이 어깨성을 쌓고 사진기며 촬영기로 꽃들을 촬영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엄지손가락을 내드는 사람이며 꽃향기를 맡아보는 사람 등 꽃의 세계에 파묻힌 사람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산다는 조선족로인인 최기우는 꽃들이 너무 황홀하여 나 혼자만 보기에는 참으로 아쉬웠다, 그래서 마누라와 사위, 손녀를 데리고 두 번째로 또 왔다고 하면서 연신 엄지손가락을 내드는 것이였다.

실내전시장에 전시된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우표첩들과 도서, 화첩들도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었다.

베이징시에 사는 리소평, 소해홍 부부는 화첩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려정-2018』을 보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의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데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조선원을 돌아보면서 조선인민의 지향과 염원을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를 이루며 조선원으로 들어섰다.

우리는 중국인민의 조선에 대한 친근한 감정이 시간이 갈수록 파도처럼 밀려드는 것을 느끼며 조선원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김철혁, 사진 본사기자 김철

# 곤충애호가들의 깊한

백두산지구와 구월산지구, 묘향산지구, 칠보산지구, 금강산지구를 비롯하여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된 지구들이 많은 조선에 대한 여러 나라 곤충애호가들의 관심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그들 속에는 몽골곤충애호가협회 성원들도 있다.

여러 나라들을 편집하며 곤충들을 채집한 이들은 조선의 생물다양성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고 주체 105(2016)년 가을 그들은 조선을 방문하였다. 등산배낭을 메고 묘향산지구로 오른 그들은 자연이 펼쳐놓은 아름다운 세계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웅장하고도 기묘한 수많은 봉우리들과 큰 바위들, 깊숙한 계곡들과 높은 벼랑, 수정같이 맑고 맑은 물과 수많은 폭포들, 울창한 수림, 거기에 다양하게 분포된 동식물상은 그들의 넋을 빼앗고 애매했다.

그들은 이때껏 말로만 듣고 보지 못하였던 희귀종의 나비들을 보고는 절로 환성을 올리면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자연보호정책에 의하여 자연보호구들이 설치되어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몽골곤충애호가협회와 곤충채집분야에서 교류를 합의하고 나비본들을 교환하였다.



이들은 시급히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조선과 곤충연구분야에서 교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선에서 이 분야를 담당한 조선자연보호련맹과 연계를 맺은 그들은 그 다음해에 조선자연보호련맹의 해당 성원들을 자기네 나라로 초청하였다.

바토 조리구 몽골곤충애호가협회 위원장은 울란바타르에서 김성남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비롯한 성원들을 만나고는 구면지기가 된듯이 기뻐하면서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한다더니 조선이야말로 산좋고 물좋고 공기맑은 곳이라고 하면서 협회성원들이 조선의 자연속에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나비를 비롯한 곤충채집분야에서 교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바토 조리구 위원장은 몽골에 조선몽골나비전시관을 꾸릴 계획이라는데 대하여서도 이야기하였다.

몽골곤충애호가협회 성원들은 올해 8월에 조선의 북부고산지대를 비롯하여 동식물분포가 다양한 지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엄향십

—인상기—

## 자기의 힘, 자기의 손으로



지난 기간 나는 조국을 여러 번 방문하였다.

올 때마다 변화되는 조국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군 하였는데 이번에도 그러하였다.

몇 년 사이에 웅장한 미래과학

자거리와 려명거리가 새로 일떠섰고 현대적인 건축미를 갖춘 봉사시설들이 많이 건설되었다.

나는 평양의 여러 상점과 백화점들에도 가보았다. 많은 제품들의 대부분이 조국에서 생산된 것들이었다. 제품들은 보기도 좋았으며 질도 높았다.

그 모든 것은 조국인민들이 적대세력들의 가혹하고도 집요한 제재와 압박속에서 자력, 자립으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물질적 재부를 창조한 것들이었다.

현실은 그 어떤 제재로도 조국인민을 절대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길지 않은 조국방문의

나날에 자기의 힘, 자기의 손으로 기어이 부강번영을 이루하려는 인민의 강용한 의지와 배짱을 보았다.

그리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식으로 살아나가는 자력갱생이 야말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해외동포로서 조선민족된 궁지와 자부심을 안겨준 조국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아울러 조국인민들이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리라는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중국 료녕성 심양시 김명화

## 제일 고운 옷

나는 조국을 방문하기 전에 중국의 한 동료로부터 색동저고리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의아한 생각이 든 나는 그에게 색동저고리는 어디에 쓰려는 가고 물었다.

그가 하는 말이 생일을 맞는 손녀에게 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물론 다른 것도 사줄수 있지만 아이들의 동심이 비끼고 칠색무지개를 수놓은 것만 같은 조국의 색동저고리를 손녀에게 생일선물로 주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중국에도 색동저고리가 많지만 조국에서 만든 색동저고리는 특별히 곱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런 모습들을 보니 나의 가슴에 조선민족된 궁지와 자부심이 넘쳐났다.

나라들마다 제나름대로의 류행복들과 민족옷이 많지만 조



선치마저고리처럼 독특하면서도 고상하고 우아한 옷은 없을 듯싶다.

아마 그래서 중국동료도 같은 색동저고리라고 하여도 조선인민들의 따스한 손길이 깃든 옷을 통하여 조선민족을 더 잘 알기 위해 나에게 부탁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장백현  
지부장 량해자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재중동포들

고국방문

## 감탄과 아쉬움을 안고

-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

김영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성원들은 지난 4월 평양의 여러 곳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만경대

평양교원대학에서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교육의 모든 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갖추어진 대학의 여러 곳을 돌아본 동포들은 저저마다 찬탄을 터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무순시지부장 김옥순동포는 이렇게 말하였다.

『될수만 있다면 나는 10대의 학생이 되여 이 대학에서 공부하고싶습니다.』

그러자 방영선동포가 김옥순동포의 말에 동을 달며 『나도 같은 심정입니다.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것은 제 자식을 이런 대학에서 공부시킬수 없는것이 참 아쉽습니다. 정말이지 감탄이

클수록 아쉬움도 함께 커지는것을 어쩔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김청수, 박진남동포들이 웃으며 『그럼 조국에 보내여 공부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감탄과 아쉬움을 안고 평양교원대학을 나선 동포들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야심만만한 배짱으로 아름다운 래일을 앞당겨가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이 더 깊이 새겨졌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조국에서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간다.



# 《빛나는 조국》에서 조선의 어제와 오늘, 래일을 보다 (4)

드넓은 장내에 충만되는 은은하면서도 박력있는 가야금의 독특한 음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조선민족음악의 아름다운 정서를 한껏 느끼게 하였다.

특히 70고개를 가까이하는 연주가와 40대나이의 연주가, 8살 난 나어린 연주가가 서로 어울려 평양의 모란봉 을밀대를 무대배경으로 민족적정서가 짙은 음악형상을 펼쳐가는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음악유산을 대를 이어 지켜가며 더욱 빛내 가고있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민족적향취가 넘쳐나는 종목은 가야금대병창만이 아니었다.

제3장 제6경 《민족의 기상》에서는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의 위력을 파시하는 태권도집체출연으로 우리모두의 가슴을 뿌듯하게 해주었다.

흥그려운 민요의 선률장단과 기름진 무용형상으로 탐스러운 열매 무르익는 황금산을 노래하고 농악무와 함께 건드리진 상모춤을 추며 황금벌의 새 력사를 예술적으로 잘 형상한 제3장 제4경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는 또 얼마나 황홀한가.

우리 동포들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공연을 보면서 조선민족의 장단이 제일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 출연자들이 우리의 민족옷을 입고 우리의 민요를 부르며 우리의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동포들은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전통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공화국의 참모습을 다시금 보게 되었다.

## 북녘사회에 넘치는 통일열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 의미심장하면서도 강렬한 주제는 통일이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제 4 장 《통일 삼천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민족사적 대업실현에서 거대한 전환적 사변들이 련이어 이룩되는 가슴벅찬 현실,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장엄히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적극적인 립장과 노력을 잘 형상하였다.

배경대에 《평화번영 통일의 새시대》, 《4. 27선언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9월평양 공동선언》, 《꿈도 하나 소원도 하나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문구들과 통일기를 형상한 그림들이 펼쳐지고 《우리는 하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의 노래들이 울려퍼질 때 나의 두 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리였다.

특히 지난 4월 27일 모처럼 마련된 판문점북남수뇌상봉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과 문재인대통령이 서로 악수하시는 장면, 4. 27판문점선언에 서명하시는 력사적화폭 등이 배경대에 모셔지자 장내에

서는 더욱 우렁찬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 모습을 우러르는 나의 눈앞에는 지난 9월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수뇌상봉의 나날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여 온 겨례에게 뜨거운 통일열망을 안겨주시었던 감동의 화폭도 떠올랐다.

공연을 관람하는 나의 마음은 벌써 평화번영과 통일의 그 날에 가있는듯싶었다.

이는 나만이 아닌 관람자들 모두의, 아니 온 겨례의 한결같은 심정이였으리라고 본다.

화해와 단합의 아름다운 춤률동과 거대한 화폭들이 경기장바닥과 배경대에 련이어 수놓아질 때 장내에는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더욱 차넘치였다.

도이췰란드에서 왔다는 한 기업인은 《김정은위원장께서 판문점분리선이 지나간 곳에서 남조선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장면으로 절정을 이룬 공연은 마땅히 세계에 기록해야 한다.

김정은위원장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이 있기에 조선의 앞날은 휘황하며 머지않아 통일도 이룩될것이다. 오늘 공연을 DVD에 기록한것이 있으면 꼭 가지고가서 우리 도이췰란드사람들에게 보여주고싶다.》고 격정에 넘쳐 나에게 말하였다.

공연관람이 끝난 후 나는 한 공연관계자를 만나 어쩌면 겨례의 통일열망을 이렇듯 훌륭한

#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7)

## 평양의 특산—평양어죽

평양어죽은 가막조개나 물고기를 두고 만든 평양의 특산음식이다.

주체 14(1925)년에 출판된 『해동죽지』(중편 음식명물 어죽)라는 책에는 평양의 이름난 음식으로서 생신한 물고기를 넣고 쑨 죽이 맛이 좋다고 소개되어 있다.

어죽감으로는 흰쌀, 물고기(잉어, 붕어, 메기 등), 가막조개, 맑알, 고추장, 소금, 간장, 마늘, 후추가루, 깨가루 등이 쓰인다.

먼저 가막조개는 그대로, 물고기는 내장과 비늘을 손질한 다음 모두 찬물에 안쳐 끓인다. 물고기와 조개가 푹 익으면 뼈, 조개껍질을 추려내고 흰쌀을 안쳐 죽을 쑨다. 쌀알이 푹 퍼지면 썬 파, 다진 마늘, 소금, 후추가루와 맑알을 풀어넣는다. 어죽을 낼 때 고추장, 오이랭국을 곁들인다.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할수 있었는가고 물었다.

그의 대답이 잊혀지지 않는다.

『매 장, 매경이 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완성된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장에서 민족사에 길이 남을 력사적화폭을 배경대에 생동하게 재현하도록 하시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같은 노래를 통해서도 겨례의 통일열망을 뜨겁게 구가할수 있도록 형

을 쑤는 녀인들의 모습과 모두가 한자리에 둘러앉아 어죽을 달게 들며 이야기를 나누는것 이야말로 류두날 평양의 대동강변에서만 볼수 있는 이채로운 풍경이였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박승길



상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의 통일의지가 얼마나 강렬하시였으면, 그분께서 얼마나 뜨거운 민족애를 지니시였으면 국사로 다

망하신 속에서도 공연세부에 이르기까지 지도를 주시였으랴 하는 생각에 목이 메였다.

력사적인 4. 27선언의 가치따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려는 겨례의 강렬

한 지향이 통일삼천리로 아름답게 수놓아지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바라는 겨례의 열망이 장내에 울려퍼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우리 민족사에 남을 재보중의 재보이다.

조선에서 《빛나는 조국》공연은 막을 내렸지만 경기장에 울려퍼지던 북녘겨례의 뜨거운 통일함성을 지금도 내 귀전에 들려오는듯싶다.

재중동포 리희진

# 참대처럼 곧게, 소나무처럼 푸르게

언제인가 나는 《금수강산》잡지에서 한 재미동포의 인상기를 본적이 있었는데 글의 내용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글에는 나무로 만든 조선기와집을 자기의 세 딸에게 조국방문기념으로 주려고 마련한 한 동포의 웅심깊은 마음이 담겨져있었다.

딸이 셋인데 기념품도 세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는 동료들에게 그는 딸들에게 공예품을 하나만 주려는것은 집이 하나이듯이 고국도 하나이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딸들이 그것을 통하여 고국을 잊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는것이였다.

옳은 말이다.

조국을 멀리 떠나 해외에서 사는 우리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 때 참대처럼 곧고 소나무처럼 푸름을 잊지 않는 마음을 가질수 있기때문이다.

딸과 아들을 가진 어머니로서 나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다. 짬만 있으면 자식들에게 우리 말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조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더 잘 알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아들인 효진이만 놓고보아도 유치원을 조국에서 다니도록 하였다.

물론 어머니로서 선뜻 아들을 품에서 떼여놓기 힘들었지만 효진이가 어릴 때부터 자기 민족을 알고 우리 말을 정확히 배우도록 하기 위해 나는 주저없이 조국에 보내였었다.

조국에서 유치원을 다닌 효진이는 우리 말을 정말 잘한다. 표현이 풍부한 우리 말을 정확히 구사하는 효진이를 볼 때마다 애아버지나 나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럴수록 또 효진이가 커갈수록 나는 아들에게 민족의 넋을 더 깊이 심어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찰나에 나는 려행길에서 우연히 조국의 한 태권도사범을 알게 되였다.

그 사범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나는 조선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였으며 또 매혹되게 되였다.

력사적으로 슬기와 용맹을 떨쳐온 조선민족의 억센 기상과 넋이 깃들어있는 전통적인 고유한 무술인 태권도야말로 민족의 자랑이며 귀중한 재부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래서 나는 효진이를 그 사범에게 맡겼으며 태권도의 세계에로 떠밀었다.

흥미로 태권도에 접어들었던 효진이는 처음에는 힘들어하였지만 점차 재미를 불이면서부터는 훈련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착실히 배워나갔다.

나는 그의 태권도수련에 필요한 자료들과 CD들도 사다주었다.

수련을 마치고 집에 와서도 태권도동작들을 익히는가 하면 태권도와 관련한 책들을 열성스럽게 읽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모른다.

이와 함께 나는 아들에게 우리 민족의 역사에 이름난 애국영장들과 아름다운 조국강산에 대하여, 전설, 일화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들에게 민족의 넋을 심어주었다고 말할수 없는것이다.

나는 자식들이 언제나 조국을 안고살도록 하기 위해 매일 조국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있다.

그래서인지 나의 딸딸도 조국의 노래를 즐겨부르고 항상 새 노래가 나오면 그 곡을 곡상의 요구에 맞게 연주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나는 자식들뿐아니라 우리 협회의 성원들에게도 늘 강조하곤 한다.

자기것을 사랑하고 빛내일 때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고 그런 토양에서만이 참대처럼 곧게, 소나무처럼 푸르게 자랄수 있다고.

나는 앞으로도 민족적인것을 살려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가며 후대들이 조국을 잊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해나가도록 할 결심이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장 한성옥

# 조선어 맞춤법에 대해 아시는지요?

얼마전 우리는 로씨야 연해변강지역의 동포들로부터 무척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였습니다.

연해변강 조선인협회 회장인 박 윌렌찐동포가 그 지역 동포들을 위하여 조선말배우기강습소를 조직하였다는것이였습니다.

로씨야동포들은 몸은 비록 해외에서 나서자랐지만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선어배우기에 이만저만 열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의 눈앞에는 몇해전에 만났던 정 로라동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우리에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라고 조선어로 말하며 환하게 웃음지었습니다. 조국방문을 마치고 귀로에 오를 때에는 우리 취재수첩에 조선어로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까지 하였습니다.

정 로라동포와 같이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을 배우고싶어하는 해외동포들을 위하여 이번 호에 조선어맞춤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주고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실이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강토에서 살며 발전하여왔습니다.

언어가 없는 민족이란 있을수 없으며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인류의 일정한 집단, 민족을 떠나서는 언어도 있을수 없습니다.

조선어는 어휘와 표현이 대단히 풍부하며 그 어면 사상감정도 훌륭히 나타낼수 있는 우수한 언어입니다.

어휘표현에서 나타나는 우리 말의 우수성을 적극 살려나가자면 맞춤법(철자법)을 잘 알고 단어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맞춤법이란 단어를 글자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의 총체인데 일명 철자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조선어에서는 발음과 글자가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소나무, 량심》 등과 같이 많은 경우 글자대로 발음하면 됩니다.

맞춤법과 발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글자를 소리마다 단위로 묶어서 네모글자로 쓰는것과 관련되어있습니다.

조선어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은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것을 허용합니다.

례1: 닭 - 수닭, 암탉  
꽃 - 꽃을, 꽃도

우의 데에서 보는것처럼 발음에 관계없이 뜻을 가지는 부분은 본래의 형태를 언제나 밝혀서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글을 쉽게 이해하고 빨리 읽을 수 있으며 같은 말도 쉽게 구별하여 그 뜻을 파악 할수 있습니다.

《닭공장에서는 닭알이 많이 나온다.》를 발음대로 적으면 《닭꽁장에서는 다같이 마니 나온다.》가 되는데 《닭》과 《꽁장》, 《꽁》과 《알》이라는 뜻이 발음대로 적은것보다 쉽게 안겨오고있습니다.

《여기가 저기보다 지대는 낫고 토질은 낫다.》를 발음그대로 쓰면 《여기가 저기보다 지대는 낫꼬 토질은 낫따.》인데 보는것처럼 그 뜻이 정확히 안겨오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함을 극복하자면 뜻을 가지는 단위는 발음에 관계없이 언제나 같은 모양으로 적어야 합니다.

우에서 보다실이 《낫, 낫, 낫》이 세 단어는 다 《낫》으로 발음됩니다. 다시말하여 발음상에서는 구분되지 않지만 뜻은 다르므로 그에 맞게 써야 보는 사람이 한눈에 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 풍속화를 잘 그린 김득신

김득신(1754년-1822년)은 18세기 우리 나라 사실주의 풍속화 창작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조선 봉건 왕조 시기의 화가이다.

도화서 화원으로서 첨사의 벼슬을 지냈다.

김득신은 김홍도와 가까이 사귀면서 당시 사실주의 회화의 전성기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높았다.

그는 자기의 그림에 근로하는 인민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그들의 생활을 폭넓고 깊이 있게 형상하여 당대의 계급 신분 관계와 경제 생활, 세태 풍속 등을 생동하게 펼쳐보이였다.

그는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농민과 량반을 그린 『량반과 농민』, 강에서 고기잡이하는 모습을 그린 『천렵도』, 시장에서 무리지어 돌아오는 장군들을 그린 『귀시도』, 고양이에게 물린 병아리의 울음소리에 놀란 늙은 부부의 헤엄비는 모습을 형상한 『고양이를 쫓는다』를 비롯한 풍속화와 함께 산수화, 동물화 등을 남기였다.

그의 인물 풍속화들은 묘사 대상의 폭이 넓고 주제 내용의 깊이가 있다. 풍속화들은 또한 구도를 잘 잡았고 구체적인 생활 계기들을 재치 있게 설정하였으며 섬세한 필치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예

리하게 형상화함으로써 개성적이면서도 세련되고 해학적이면서도 친근감을 안겨준다.

김득신은 형상의 폭과 묘사력에서 당대의 화가들인 김홍도와 신윤복을 따르지 못하였으나 개성적인 인물 풍속화의 우수한 작품들을 수많이 남기였다.

이외에도 그는 진지한 현실 탐구에 기초한 생활 계기 설정에서의 뛰어난 재치, 인물 성격 형상에서의 예리성, 섬세성을 안 반침한 생활 묘사의 생동성과 현실 반영의 진실성 등으로 하여 사실주의적인 인물 풍속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 \* \*

### 유모아

#### 머니의 실물교양

남편: 『여보! 이렇게 시퍼런 대낮에 전등을 켜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오?』

안해: 『나도 방금 들어왔는데 집에 불이 켜져있더군요.』

남편: 『아침에 분명히 끄고 나갔는데…』

안해: 『아들녀석이 그랬겠지요 뭐..』

남편: 『그럼 당신이라도 제껴 꺼야지.』

안해: 『그럴수 없어요. 당신은 내가 애를 유흘 때마다 나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실물교양을 하지 않는다고! …』

남편: 『그럼 이게 어머니의 실물교양인가? …』



\* \* \*

조선어 맞춤법에서는 일부 경우 단어를 소리나내로 적거나 관습대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례2: 좁쌀(조+쌀), 소나무(솔+나무), 부삽(불+삽), 휘파람(휘+바람), 미닫이(밀+닫이), 다팔이(달+닫이)

례3: 옛날, 짓밟다

례3에서와 같이 받침 소리를 《ㄷ》 또는 《ㅈ, ㅊ, ㅎ, ㅌ…》 등으로 적지 않은 것은 지난날 이러한 받침 소리를 《ㅅ》로 표기하여 굳어진 것과 관련됩니다.

뿐만 아니라 받침 소리를 이 경우에 다른 것을 밝혀 적어야 할 그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지난날 적어 오던 관습에 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다 싶이 조선어 맞춤법에 대한 이해는 우리 말과 글의 쓰기와 읽기에서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옳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조국에 오시는 동포 여러분이 우리와 조선 어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게 되기를 기대하며 펜을 놓겠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 우리 민족의 반침략투쟁사 (3)

612년 외적들은 300만에 달하는 대규모의 병력으로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598년 고구려에 침입하였다가 쫓겨난 침략자들이 교훈을 찾을 대신 또 다시 고구려를 침공하였던 것이다.

612년 2월 말 침략자들은 고구려의 서쪽 전초기지인 무려라(대릉하동쪽계선)에서 얻어맞고 료하동쪽계선에서 크게 패하였으나 수적 우세를 믿고 계속 덤벼들었다. 4월 중순에 이르러 전선은 료하동쪽의 고구려 성들에 맑겨졌다. 침략자들은 수십만의 군대로 고구려의 농동성을 공격하였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함락시킬 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침략자들은 6월 중순 30만 5 000명의 별동대를 편성하였다. 목적은 고구려 방어선이 약한 고리를 돌파한 다음 수군과 합세하여 북 평양성을 공격 하자는 데 있었다.

이 소식은 곧 고구려 군 지휘부에 전해졌다. 작전 토의에서 장수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전선 지휘를 맡고 있던 을지문덕 장군의 계획대로 적정을 살피 다음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여 을지문덕 장군을 대표로 하는 고구려의 담판단이 적의 별동대를 향해 떠났다.

한편 적군은 식량과 군수 물자를 비롯한 각종 짐때문에 행군 속도가 떠졌고 군사나 말이나 며칠 못 가 다 맥이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적의 군사들은 군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숙영지마다에 식량을 몰래 파묻어 될 수록이면 무거운 짐을 덜려고 하였다. 그런 것으로 하여 목적지에 가닿기도 전에 식량은 거덜이 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을지문덕 장군이 적들의 진영에 나타났다.

담판이 시작되자 적들은 저들의 대무력이 조만간 고구려의 수도로 쳐들어갈 것이니 쓸데없이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였다.

을지문덕 장군은 이번 걸음이 적의 실정을 탐지하는데 있었던 것 만큼 사리정연한 론리로 담판을 질질 끌었다. 그 과정에 그는 적들이 깊주림에 허덕이고 있으며 적장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다는 것을 포착하였다.

담판은 을지문덕 장군이 임금의 결론을 받아 다시 론의하는 것으로 아퀴를 지었다.

그 무렵 고구려 군은 북 평양 일대에서 적의 수군

에 섬멸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적의 협공 전술을 파탄시키고 전쟁 수행 전반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 놓았다.

담판과정을 통하여 적군의 내부 실정을 파악한 을지문덕 장군은 적을 더 깊숙이 끌어들여 퍼로케 한 다음 살수 계선에서 소멸할 계략을 꾸몄다. 그리고 적의 후방 부대를 들이쳐 가뜩이나 식량 난에 허덕이는 적에게 큰 타격을 주는 한편 청야 수성 전술로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을지문덕 장군의 이 계략에 따라 소수의 고구려 군은 적과 싸우는 척 하다가는 물러서 군하면서 적을 유인하였다. 고구려 군의 진짜 의도를 알리 없었던 적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살수를 건너 북 평양 성 밖 30리 되는 곳까지 밀려들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미 고구려의 대군이 중 중첩첩의 견고한 진을 치고 적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제서야 적장은 자기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적들이 진퇴 양난의 처지에 빠져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을지문덕 장군의 시 한수가 적장에게 전해졌다.

조조와 야유에 찬 시를 받은 적장은 온몸이 나른해졌다.

그는 퇴각 명령을 내렸다.

이때를 기다리고 있던 을지문덕 장군은 드디어 출전 명령을 내렸다.

고구려 군은 적들에게 숨돌릴 틈도 주지 않고 맹렬한 추격전을 벌렸다.

7월 24일 살수에 따른 적들이 절반쯤 도하했을 때 고구려 군은 총 공격을 개시하여 적을 무리로 쓸어눕혔다.

살수 전투에서 겨우 살아남은 적들만이 하루 낮 하루 밤 사이에 출행 랑을 놓았다.

별동대의 참패 소식은 적군으로 하여금 총 퇴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다.

살수에서의 고구려 군의 승리는 중세 전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큰 승리로서 『살수 대첩』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강세권

# 부분노의 지략

류리왕이 즉위한 후 어느해 여름날이었다.

왕은 부분노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을 불러놓고 근심어린 어조로 말하였다.

『지금 외적들은 지세가 험한것을 믿고 우리 고구려와 화친하려 하지 않고 자주 지경을 침범하여 로략질을 일삼고 있으니 아무래도 이번에 적들과 끝장을 보아야 할것 같다. 그러니 의논들을 해보자.』

여러 장수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서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이럴 때 부분노가 왕앞에 한 걸음 나서며 말하였다.

『소인의 생각에는 외적들에 게 우리가 약한것처럼 보이게 하는 계책을 써보는것이 어렵가 합니다.』

그러자 부위염이 그 의견을 반대해나섰다. 부위염도 그전에 북옥저를 쳐서 귀속시킨 장수였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보나이다. 지금까지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에게 귀속해온것은 고구려의 강대한 위력에 위압된것이였으니 오늘 그 존위를 손상시킬수 없나이다.』

그러나 부분노는 자기의 의견을 거두려 하지 않았다.

『지금 외적이 험한 지세를 믿고 완강하게 저항하고있는 형

- 강건너 불보듯 (하다)

벌어지는 일에 주인답게 관계하지 않고 관조적립장에서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국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 모른다

일이 어떻게 되여가는지 도무지

편에서 우리가 힘으로만 굽히려고 하는것은 도리여 나라의 존위를 지키는데 리로운것이 아니라고 보나이다.』

두 의견이 대립되어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분노에게 물었다.

『그대에게 좋은 계책이 있어 그런 제의를 한듯싶은데 그래 우리가 약하게 보이고서 외적을 징벌하자는 지략은 어떠한 것인가?』

부분노는 왕앞에 나서며 싸움에서 이길수 있는 전략전술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승낙하면서 모든 일의 주관은 부분노에게 맡긴다고 하였다.

다음날부터 부분노는 자기의 지략을 실현하기 위한 일들을 펴나갔다. 그는 먼저 외적과 린접한 변경지역에서 대부분의 군사와 장비를 국내깊이로 이동시키는척 하면서 방비도 허수해보이도록 해놓았으며령리한 부하한 사람을 소금장사로 가장시켜 외적들에게 들여보냈다.

그리자 외적은 하는수 없이 항복하고 드디여 고구려에 귀속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승전을 축하하여 차린 연회에서 부위염은 부분노의 팔을 힘있게 잡으며 말하였다.

『이번 싸움은 지략으로 이긴 전투일세. 암, 적들이 고구려가 약하다고 본 자체가 실책이였지.』

고구려의 위용은 그후에 더욱 높이 떨쳐져 천년강국으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였다.

\* \* \*

르는 말.

- 초낮이 밤중이다

초낮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밤중으로 안다는 뜻으로 때가 어떻게 되었는지, 일이 어떻게 되여가는지 도무지 모르고 있음을 비겨 이르는 말

\* \* \*

## 조선속담 (무관심성)

알지 못함을 비겨 이르는 말.

- 먼산우의 바위보듯

먼산우의 바위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흥미도 주지 않으므로 명청히 바라본다는 뜻에서 무관심한 눈으로 어떤것을 바라보는것을 비겨 이

밤을 타서 준비시켰던 군사들을 감쪽같이 외적의 성곽밀에까지 접근하여 매복하도록 한 다음 그 이튿날 아침 다른 한 군사들이 외적에게 싸움을 겨는척 하다가 반격에 못이겨 쫓기는 듯 피하도록 하였다. 아니나다를가 외적들은 성문을 열고 달려나왔다. 고구려의 다른 군사들이 외적들을 멀리로 끌어내간 다음 부분노는 매복했던 군사를 풀어 열려진 성문으로 돌입하여 거의 비다실이한 성을 순식간에 점령하였다.

뒤늦게야 사태를 알게 된 외적들은 돌아서서 성을 차지하려 하였으나 성을 차지한 고구려군사들과 외적을 성에서 끌어낸 군사들이 되돌아와 포위하고 들이치는 바람에 그야말로 독안에 든 쥐의 신세가 되였다.

그리자 외적은 하는수 없이 항복하고 드디여 고구려에 귀속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승전을 축하하여 차린 연회에서 부위염은 부분노의 팔을 힘있게 잡으며 말하였다.

『이번 싸움은 지략으로 이긴 전투일세. 암, 적들이 고구려가 약하다고 본 자체가 실책이였지.』

고구려의 위용은 그후에 더욱 높이 떨쳐져 천년강국으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였다.

\* \* \*



## 평안남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4)

### - 백상루 -

백상루는 평안남도 안주시에 있는 루정으로서 고려시기에 처음 세우고 조선봉건왕조 시기에 고쳐세웠다.

안주성의 북장대로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볼수 있는것으로 하여 백상루는 예로부터 판서8경의 하나로 알려진 역사 유적이다.

백상루라는 이름은 백가지 경치를 다 볼수 있는 루정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백상루는 규모가 큰 루정으로서 밑에는 정연한 기단이 갖추어져있고 장방형으로 생긴 2개의 루정이 가로세로 맞붙인것처럼 생긴 2층의 겹쳐마합각루이다.

루정은 남쪽 정면 7간, 동쪽

측면 6간, 서쪽 측면 4간이다.

백상루의 기둥배치에서는 네 면 가운데 간들을 넓게 하여 중심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루정 건축에서 흔히 써내려온 전통적인 수법이다.

백상루의 기둥은 웃부분보다 밑부분이 조금 굵은 아름다운 훌륭기둥이다.

두공은 그 물림이 아주 치밀하다.

지붕은 합각식이다. 통마루 높이와 박공의 위치를 건물의 길이와 너비에 어울리게 정하였기 때문에 몸체와 지붕의 균형이 잘 잡혔다. 지붕에서 특징적인것은 건물의 몸체는 하니면서도 네면에 박공을 냈

기때문에 마치 여러 건물을 잇대여 지은듯 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천정은 통천정으로 하여 루정안이 장중하면서도 시원해보이게 하였다.

백상루에는 건물과 주위환경에 어울리게 모루단청을 입혔다.

건축구조와 부재에 어울리게 그려놓은 아름다운 단청은 백상루의 건축장식적 효과를 잘 돋구고 있다.

오늘 백상루는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유적으로서 잘 보존관리되고있을뿐아니라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이용되고 있다.

# 연안성의 쇠돌이

우리 나라를 침공한 왜적들은 1592년 9월 황해도 일관을 싸다니며 도처에서 로략질을 일삼고 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이미전에 리조참의를 한 리정암이 연안부사로 부임되어 이곳에서 성을 수축하고 군사를 뽑아 조련시키고 있었다.

연안성 남문밖에 사는 힘이 황소같고 돌팔매를 잘하기로 소문난 장쇠돌이도 병정이 되어 조련에 참가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왜적이 쳐들어온다는 급보가 성안에 날아왔다. 리정암은 군사들을 선발하여 각 성문으로 보내는 동시에 성안의 백성들 가운데서 녀자들과 늙은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군사들과 함께 성을 지키게 하였다. 그는 또한 로인들과 녀자들이 각기 해자루를 많이 마련하게 하는 한편 가마에 기름과 물을 끓이도록 하였다.

며칠후 만명에 가까운 왜적들이 성으로 쳐들어왔다. 연안성 안에 있는 군사는 판군, 백성까지 합쳐서 수천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연안성의 군사와 백성들은 적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에 불타있었다.

5리밖에 본영을 둔 적들은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쇠돌이는 달려드는 적들을 향해 번개같이 돌을 날렸다.

적들은 성벽에 새까맣게 불어서 성우로 기여오르고 있었다. 그는 큰 기름독과 물통을 번쩍 들고 성우로 올라오는 적들의 머리우에 쏟아붓군 하였

다. 그럴 때마다 적들은 성벽에서 떨어져 상하거나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다음날 적들은 성에 함부로 가볼지 못하고 눈먼 종질을 해댔다. 쇠돌이는 하루종일 돌팔매로 적들의 머리를 까고 면상을 망그려뜨려놓았다. 그러나 성앞에 바투 들어온 왜적을 겨누어 돌팔매를 할 때면 상반신이 성우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때마다 왜적의 총알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곁에 있는 군사들이 위험하니 주의하라고 극력 말렸건만 쇠돌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가며 돌팔매를 련속 쳤다.

돌팔매에 머리통이 터지고 화살에 거꾸러지면서도 왜적들은 악착스럽게 나무를 날라다가 성 밑에 쌓아놓기 시작하였다. 한낮이 기울무렵에는 마침내 그 높이가 성과 거의 같아지게 되었다.

한층 더 맹렬한 엄호사격 아래 왜적들은 시퍼런 칼들을 뽑아들고 그 나무더미 위로 기여올랐다.

이때였다. 북소리가 요란히 울리자 성우에서는 기름독, 기름자배기들이 나무더미 위로 련속 날아들어갔다. 련이어 불이 활활 이는 화들이 무수히 날았다. 적들이 진종일 그렇듯 목숨걸고 쌓아올린 나무더미에는 일시에 불이 붙어서 무서운 화염을 뿜었다.

적들은 분이 머리꼭두까지 올랐지만 하는수 없이 퇴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후 사

흘동안 적들은 움직하지 않았다.

그러한 때 적정을 알아가지 고온 한 군사가 적들이 해주와 평산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저의 수하부대들을 모조리 연안으로 불러다가 큰 싸움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대장에게 보고하였다.

대장은 쇠돌이를 비롯한 연안성의 장사 열한명을 불러 적진을 기습하도록 하였다.

쇠돌이는 장사들과 함께 소리도 없이 성을 빠져나가 적군막으로 쳐들어갔다. 곤히 잠들었던 적들은 순식간에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쇠돌이는 깨여나 소리지르며 뛰는 적들을 놓치지 않고 돌팔매로 요정냈다.

적들은 쇠돌이의 돌팔매에 얻어맞고 나자빠졌다. 이어 함성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군사들이 앞에 서고 그뒤를 따라 백성들이 쏟아져나왔다. 남녀로소 구별없이 저마다 손에 병장기를 잡았는데 그 형세가 마치 성난 파도와 같았다.

적들은 대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하였다. 연안성의 군사와 백성들은 적들을 포위하고 쉴 새 없이 들이쳤다.

하루밤사이에 병졸의 태반을 끓은 적들은 할수없이 퇴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처럼 연안성의 군사와 백성들이 용감하게 싸워 왜적을 물리치고 자기 고장을 지켜낸 승리에는 쇠돌이의 역할도 있었다.

본사기자 김슬기

#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7)

## - 리명수폭포 -

리명수폭포는 량강도 삼지연군에 있다.

폭포는 100만년전 백두산에서 분출한 현무암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리명수골짜기의 오른쪽 절벽에 비단필을 드리운듯 수많은 갈래의 물줄기로 흘러내린다.

폭포의 기본물줄기는 9개이며 물줄기사이에 구슬처럼 흘러내리는 무수한 작은 폭포들이 있다.

기본물줄기들은 바위턱에 부딪쳐 구슬같은 물방울로 흘러져내리거나 여러줄기로 갈라져내리며 그것이 다시 모여 물줄기를 이루기도 하면서 리명수물동의 인공호수로 내린다.

여러가지 모양의 폭포들을 축소하여 한곳에 모아놓은듯 한 리명수폭포는 물줄기들사이에 드러난 검은 바위, 폭포아래의 수정같이 맑은 호수, 주변의 나무숲들이 서로 잘 어울려 특이한 경치를 이루고 있으며 철따라 색다른 경치를 보여준다.

봄에는 진달래꽃, 여름에는 푸른 숲, 가을에는 단풍이 폭포와 호수에 어리여 이채로운 경치를 나

타내며 맑은 날에는 폭포에서 텁겨나오는 물방울들이 해빛을 받아 칠색무지개를 이루어 황홀한 감을 더해준다.

겨울에는 얼음폭포로 변하나 얼지 않은 물줄기가 있는가 하면 고드름사이로 흐르는 물도 있다. 특히 땅속에서 흘러나온 물이 찬 대기와 접촉하여 생긴 안개가 주변의 나무들에 흰 서리꽃을 퍼워 이 일대를 서리꽃숲으로 변하게하는데 그 모습은 볼수록 장관이다.

겨울철 폭포의 경치는 다른 곳에서 보기 드물다.

신기한 지하수폭포인 리명수폭포는 풍치상의 의의가 있는것으로 하여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345호로 지정되었다.

폭포벽우에는 정각이 있다.

이곳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사적지답사 및 관광로정으로 되여있다.

본사기자



# 자주통일의 근본초석

력사적인 7. 4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47년이 되었다.

조국통일운동사에서 일대 사변으로 아로새겨진 7. 4공동성명의 발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자주통일사상과 의지의 결실이다.

지난 세기 70년대초 거례의 절절한 통일념원파 격변하는 내외정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을 마련하시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북남공동성명을 통하여 내외에 전명하도록 하시였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토대하여 전진하는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밝힌 조국통일의 근본초석이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70여년의 민족분렬의 력사를 하루빨리 끝장내는 것은 조선민족앞에 나서고 있는 최대의 과제이다. 분렬의 장본인인 외세는 절대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선사하지 않는다. 자주적립장을 가지지 않고서는 조국통일운동에서 제기되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 할수 없다.

조국통일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민족이고 통일문제해결의 주인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다. 민족자주를 실현하여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맞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풀어나갈 때에만 조국통일운동은 자기의 궤도를 따라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다.

평화통일원칙은 온 거례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근본방도를 밝힌 원칙이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속에서는 거례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민족의 존재와 발전도 기대할수 없다.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우리 민족에

게 불행과 고통만이 들씌워지게 될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근본담보인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온 거례의 삶의 터전, 미래와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이다.

민족대단결은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루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단결하면 할 수록 조국통일의 주체적 힘은 그만큼 강해진다.

우리 민족은 대단결을 이루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민족의 강렬한 조국애와 자주정신, 유구한 세월을 이어오며 공고화된 민족성은 민족대단결을 이루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상정신적원천으로 된다. 하나의 펴줄로 이어진 우리 거례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운다면 얼마든지 대단결을 이루할수 있다.

참으로 7. 4공동성명을 통하여 내외에 엄숙히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민족의 념원과 의지를 집대성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명실공히 자주의 한길을 따라 출기차게 전진해 올수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을 마련하시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초석으로 하는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지난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고 주동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을뿐아니라 여러 차례의 북남수뇌상봉도 마련하여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주시였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새로운 자주통일리정표이다.

이와 같이 세월이 흐르고 정세가 아무리 복잡다단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수 없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거례는 조국통일3대원칙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과감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희망찬 미래를 기어이 앞당겨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 민주와 정의에 대한 도전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세차게 폭발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극우보수론객들을 끌어들여 이를 바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라는 것을 벌려놓았다. 여기에서 이 《당》의 《국회》의원들은 광주인민봉기를 《북의 특수부대에 의한 폭동》으로, 봉기희생자유가족들을 《종북좌파가 만든 폐물집단》으로 모독하는 망언들을 거리낌없이 내뱉었다. 그런가 하면 광주를 피바다에 잠근 살인마인 전두환을 《영웅》으로 추어올리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을 《국회》청사밖으로 마구내쫓는 망나니짓을 부리였다.

광주인민봉기를 중상모독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망동은 온 남조선땅을 증오와 격분, 규탄과 성토로 끓어번지게 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추래를 《진실과 정의를 모독한 용서할수 없는 만행》으로 단죄하면서 사건장본인들의 《국회》의원직 제명과 《자유한국당》의 공식사죄 등을 요구하여 연일 항의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야정당들도 이들의 망동을 《나치스범죄를 풍가하는 천인공노할 만행》, 《민주주의를 거부한 력사쿠데타》로 락인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의원직 박탈과 형사처벌을 강력히 주장

하고 있다.

이에 바빠맞은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를 한다, 《징계안》을 발표한다 하고 분주탕을 퍼우며 민심을 뉙잦혀보려 하고 있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것으로서 각계의 항의기운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력사적사실을 외곡하면서 광주인민봉기를 심히 중상모독한 것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세인이 다 아는바와 같이 1980년 5월에 일어났던 광주인민봉기는 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로운 반파쑈민주항쟁이였다. 당시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전두환일당의 파쑈적인 군부독재통치에 항거하여 대중적인 항쟁을 벌리였다. 봉기자들의 굴함없는 항거정신에 질겁한 군부는 중무장한 수많은 무력을 내몰아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벌리였으며 《계엄군》의 몸서리치는 살인만행에 의해 광주시는 그야말로 세인을 경악시키는 피의 목욕탕으로 화하였다.

력사적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인민봉기를 그 누구에 의한 《폭동》으로 헐뜯고 항쟁용사들을 무참히 살해한 전두환역도를 《영웅》으로 미화분식한 그들의 망동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며 정의와 진리에 대한 용납 못할 유린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스스로의 처신으로 저들이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의 후예이고 민주의 교살자이며 피비린내나는 살인본당이라는것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놓았다. 더우기 이 자들은 광주인민봉기와 관련하여 황당한 모략설을 내돌리며 동족까지 물어뜯음으로써 북남 대결에 미친 민족반역무리의 기질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저들이 지난 시기 저지른 온갖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할 대신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 망령을 되살리는가 하면 전두환에 대한 환상까지 조장하며 초불민심에 도전해나서고 있다.

그것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저들이 내세운 민족의 반역자들을 다시 되살려 보수의 재집결, 재집권야망을 실현하자는 데 있다.

재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 어떤 추악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 이런 역적무리들을 그대로 둔다면 남조선인민들이 피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초보적인 성과들이 유린당하고 나중에는 제2의 광주사태까지 재현되게 될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파거죄악을 미화분식하며 보수 《정권》을 부활시키기 위해 최후발악하는 《자유한국당》의 역적배들을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본사기자

#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다

일본은 파거에 저지른 극악한 범죄들을 덮어버리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범죄들은 덮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세상에 알려지는 법이다.

일본 히로시마현 다께하라시의 앞바다에 있는 오꾸노시마(오꾸노섬)도 지금은 섬전체가 휴식터로 전변되어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당기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만 하여도 이곳은 독가스제조소였다.

오꾸노섬에 구일본육군의 독가스제조소가 존재하였으며 전시에 독가스가 생산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이 섬에서 독가스제조설비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1929년 5월부터였다.

이보다 앞서 침략전쟁을 위해 일제는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독가스무기연구에 달라붙었으며 1925년에는 도이칠란드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치사성독가스를 합성해냈다.

독가스의 대량생산을 위해 공장부지를 찾고 있던 일제침략자들은 만일의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가 적고 륙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 기때문에 비밀을 담보할 수 있다는데로부터 이 섬에 눈독을 들이었다. 당시 섬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을 강제이주시킨 후 군사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지도상에서 섬을 지워버리기까지 하였다. 독가스제조는 일제의 패망작 전까지 계속되었다.

관계자들을 비롯한 많은 인물들이 섬을 찾았다고 한다.

공장에는 프랑스산 독가스제조설비가 설치되었다.

조업 당시 공장의 생산환경은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과정에 여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그후 제조법이 완성되자 1940년대부터 전문적으로 독가스제조를 담당할 사람들에 대한 육성사업이 시작되었다.

이곳에서 제조된 독가스들은 일제의 침략전쟁터들에 보내져 인간살륙에 사용되었다.

한편 1944년 침략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게 된 일제침략자들은 10대의 나어린 소년들까지 《학생동원》이라는 미명하에 섬에 끌어다놓고 철저한 감시하에 풍선폭탄과 발연통을 만들도록 하는 등 최후발악을 다하였다.

전쟁이 마감단계에 이르자 공습을 피하기 위해 많은 양의 도람통들이 다른 섬으로 운반되었는데 그 과정에 통해서는 원인모를 액체가 새어나왔다. 여기에 동원되었던 소년들의 허리는 온통 물집투성이로 되었고 재채기와 기침이 멎지 않았다. 후에야 소년들은 섬에서 제조한 독가스원료가 그 도람통에 들어 있었으며 자기들이 만든 풍선폭탄, 발연통들이 침략전쟁터들에 보내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독가스제조는 일제의 패망작 전까지 계속되었다.

공장에서는 전쟁이 끝날 때

까지 6 000여t의 독가스와 풍선폭탄, 발연통들이 제조되었다. 여기에 종사한 로동자, 학생들의 수는 6 000여명에 달하였다. 섬안에 저 장되어 있던 독가스와 가스탄 등은 일제의 폐방과 함께 바다에 버려지거나 섬안의 방공호에 매몰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독가스무기들이 일제의 침략전쟁터들에 보내여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섬에서 독가스제조에 종사하였던 사람들도 그 후 유증으로 고생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1952년에 심한 기침으로 병마에 시달리다가 죽은 이 공장로동자에 대한 부검결과 그가 폐암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피해를 철저히 보상할 데 대한 투쟁도 벌어졌다.

독가스장애 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2015년 시점에서 일본에서만도 2 15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활한 일본반동들은 철면피하게도 독가스사용사실을 한사코 부정해나서고 있다. 그것은 오꾸노섬을 휴식터, 관광지로 변모시킨 자체가 저들의 범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오늘도 오꾸노섬은 력사의 증전자로 남아 일제의 범죄적만행을 만천하에 날낱이 고발하고 있다.

# 화포금샘물

맛과 순수한 물맛을 주는 21세기의 리상적인 건강음료로서 사람들을 무병장수에로 안내하여 줄것입니다.

본사기자 최은혁



## 분석표 (mg/L)

$\text{Au}^{3+}$	0.001 ~ 0.002
pH	7.3 ~ 7.8
$\text{Ca}^{2+}$	32.0 ~ 35.0
$\text{Mg}^{2+}$	6.0 ~ 13.6
$\text{Na}^+$	1.84 ~ 2.97
$\text{K}^+$	0.16 ~ 0.26
$\text{Se}^{2-}$	0.003 ~ 0.022
$\text{F}^-$	0.06 ~ 0.19
$\text{H}_2\text{CO}_3$	109.8 ~ 158.6
$\text{Ag}^+$	0.011~0.015

본사기자 김슬기



칠보산의 여름 본사기자 김춘혁

칠보산은 조국의 명산들중의 하나이다.

예로부터 함북금강으로 불리우는 칠보산의 여름은 울창한 소나무숲파  
기암들이 하나의 절경을 이루어 뛰여난 명산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 준다.

